

통권 제9호
2008

The Magazine of SokchoArts & Culture

속초예술



© 김영복

산맥

채재순 |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험준한 산길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는 나무들
희망에 대해 요란스레 들뜨지 않고,
절망을 만나도 굽히지 않았던 시간들
지금 통과하는 능선과 능선이
굽이굽이 산맥을 이루리라
절벽이 잇닿은 길들
두려움을 넘어서
가파른 생애를 이끌고 넘은 이들이
산맥이다
꽃꽂한 산맥을 보라
얼마간의 벼랑이 구석구석 숨겨져 있다
온몸으로 끌고 온 굴곡이
일몰에 한층 선연하다



표지사진

작가 김 영 복

한국예총 공로상(94)
속초시 문화상(문화예술부문 2000)
강원도 교원미전 초대작가상(2002)
속초미협, 속초예총 회장 역임

M.010-6373-4180
속초시 금호동 627 e편한세상@ 101-301

발행인 : 한 기 학
발행일 : 2008.12.31
편집인 : 박 종 성
인쇄 : 씨엔씨디자인

〈비매품〉

이 책은 강원문화재단 및 속초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 되었음.

한국예총속초지부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속초시문화회관 내
TEL (033) 631-8070
FAX (033) 632-8072
e-mail : art-217@hanmail.net

2008 속초예술

한국예총 속초지부 통권9호
www.artsokcho.com

발간사	속초예총 회장 한기학	02
격려글	강원도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최지순	03
문화칼럼	천하를 호령하고 지축을 뒤흔드는 풍요의 소리 - 태평소 주동진	04
	문학작품과 과학적 상상력 박명자	08
FOCUS	속초의 소극장 건립을 바라며 김귀선, 최소영, 석경환	11
	춘천 예술 마당의 극장 및 아트센터·신주쿠Tiny Alice 극장활용에 관한 보고서	
무용이야기	한국무용 권오돈	16
공연탐방	내가 본 감동의 무대 리처드 웅재 오닐의 리사이틀 강은희	20
연극이야기	교육연극 - Process drama 황헌중	23
내 선택 연극	연극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김민혁	27
시가 있는 이야기	신사임당 한詩 - 아 사임당 그윽하신 님의 발자욱 헤아리며 박명자	32
	베니스의 노래 지영희	34
	나를 갈다 김종헌	35
	속초여자 돌쫓은 박대성	36
	어머니 조인화	38
	외사랑 고선희	39
훈춘여행기	9년 전 처음 길 연 선구자적 수고에 숙연함 이은자	40
미술이야기	나의 작품, 나의 서예觀 김광희	44
작가가 들려주는 「나의 작품」	나 어릴적 꿈 조정승	50
	숫대 - 기원 진금희	
	코스모스 피어있는 실개천 조정남	
속초사진작가협회 지상갤러리	영랑호의 석양 강영진	53
	김창환	
해외기고문	반성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수업 김옥란	56
설악 백일장 수상작	제14회 설악주부백일장 · 제19회 설악청소년백일장	58
2008년 예총속초지부 돌아보기	박종성	71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한 기 학 |
속초예술 회장

설악산의 정수리에 쌓인 흰 서설이 어느새 한 해의 마감을 알리는 신호 등 같은 느낌이 드는 2008년의 끝자락입니다.

2008년 한 해도 우리 예술 8개 협회의 다양한 행사와 뜨거운 예술 혼이 꽃피는 잔치마당을 뛰어다니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피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우리 속초 향토 예술인들의 뜨거운 열정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여러분의 치열한 예술정신이 담긴 작품과 공연 하나하나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리 속초지역을 문화의 변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문화적 환경은 변방에 속할지 모르지만 우리 8개 협회 예술인들과 그 활동은 결코 변방이 아닌 당당한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초 예술과 8개 협회가 지난 1년간 펼쳐놓은 다양한 활동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술회원 여러분!

지난 2008년 무자년 한해에 여러분이 흘린 땀과 열정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09년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속초 예술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자는 결코 내일을 향해 뛸 수 없습니다.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내고, 이에 발맞추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을 뛰어넘는 내일'의 속초문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지금 통권 9호 '2008 속초예술'을 여러분 앞에 내 놓습니다.

이는 우리 속초 예술인들의 숨결이자 발자취입니다. 비록 그 흔적이 지금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이 작은 열매들이 모여 나중에 커다란 숲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치열한 예술정신으로 우리 속초문화를 꽃피워 주신 문인, 미술, 연극, 연예, 음악, 국악, 사진, 무용협회 각 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향 속초, 문화 속초'로의 도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채용생 속초시장님과, 시의원님들, 그리고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문화 마당 역할의 속초예술지”

세계경제의 위기와 함께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웠던 2008년, 이제 속초예총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속초예술지” 제9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4,500 강원예술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속초예술지는 속초예총의 회원단체 및 그 예술인들의 한 해 동안 작품 창작의 활동과 기록으로서 지역의 예술 문화 활동을 총정리하고 평가하는 종합예술지이며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문화로 만나고, 시민과 예술 작품이 서로 소통하는 또 하나의 문화 마당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속초예총은 40년 이상의 역사와 함께 연륜을 쌓으면서 활동하여 오는 동안 청정 동해바다와 설악산이 있는 영북 지역의 문화, 관광, 물류의 거점도시로 발전함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도 많은 활동을 펼쳐 오신 속초예총의 각 회원단체와 예술인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속초예술지” 제9호를 아름답게 펴내신 한기학 회장님과 임·회원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예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 12.



| 최 지 순 |
강원도예총 회장

천하를 호령하고 지축을 뒤흔드는 풍요의 소리 - 태평소

주 동 진 | 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부회장

태평소는 선율악기 중에서 소리가 제일 크고 멀리 퍼져나가 마치 경적을 울리는 것처럼 시끄러워 야외연주에 적합한 악기이다.

원래는 서남아시아 지방(현 중동지방)이 발원지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들지역의 악기는 우리나라의 태평소와 생김새는 아주 비슷하나 음계나 취법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들 지역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와는 달리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가락을 끊지 않고 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악기가 고려말에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고 지금까지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태평소의 명칭

태평소의 명칭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던 이름이고, 민간에서는 호적, 호가, 새납, 쇠나, 철적, '쇄로된 입' 처럼 생겼다하여 금구각, 또는 순 우리말로는 태평소의 특유한 소리를 빗대어 속칭 '날라리' 라고도 부른다. 중국에서는 소이나, 또는 소나라고하며, 동남아시아 여러나라에서도 비슷한 발음으로 불린다.

이와같은 다양한 명칭은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각 나라에 두루 퍼져나가면서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생겨난 것으로 추정 된다. 호적 쇠납 날라리, 태평소, 소눌 등으로 불렸던 이 악기는 1993년 국립국악원에서 새납으로 통일해 쓰기로 했으며 태평소라는 이름도 함께 쓰기로 하였다.

태평소의 용도

조선시대에는 태평소가 군대의 무리에서 행진음악인 대취타와 외국 사신의 접대나 왕의 능행(임금이 신하를 대동하고 선왕이나 왕비의 무덤에 행차하는 행사)시, 종묘제례악의 정대업중, 소무, 분옹, 영관의 의식음악에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태평소가 사용되는 용도는 여러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농악대의 행진이나 무속음악, 유랑예인들의 공연, 탈춤패의 길놀이, 불교의식의 하나인 재, 남사당패의 판굿, 그리고 무엇보다 국악관현악에서의 협연으로 실내악에서의 독주용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왕의 위엄을 높이거나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용도와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태평소가 그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농악대의 선두에서 씨끄러운 풍물소리를 감싸안으면서 그 소리를 좀더 부드럽고 분위기를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악기를 만드는 재료

악기를 만드는 재료로 관대는 대추나무나 뽕나무, 회양목, 장미나무등 비교적 단단한 나무를 재료로 사용한다. 특히 흑단은 상품의 재료로 취급되어진다. 그 이유는 태평소 특유의 높고 야무진 소리를 내며, 멀리 퍼져나가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팔랑과 동구는 구리를 사용한다.



태평소 음악의 발달

우리 문화의 암흑기인 일제시대에는 특별한 놀거리나 볼거리가 없었던 그 당시 서민들의 삶속에 가장 유행했던 것이 유랑극단이나 판소리를 극화시켜 만든 창극이라든지 여성 국극단이었다.

이들은 전성기를 맞아 전국을 떠돌아 다니며 대유행을 하였고, 이들을 따라다니며 반주하던 음악팀들도 큰 인기를 끌게된다.

확성기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이들은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 소리가 제일 큰 태평소를 앞세워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홍보하였던 것이다.

태평소가 유랑극단 홍보의 주역으로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공연을 최대한 홍보하기 위해 반드시 제일 잘 부는 태평소 주자들은 보다 맛있는 가락을 만들고 멋들어지게 연주함으로써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이다. 이렇게 태평소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잘부는 주자일 수록 인기도 높고 보수도 그 만큼 많았으리라 짐작이 된다.

이들로 인해 판소리나 산조등의 선율을 태평소로 옮겨 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가락들이 점차 독주곡으로 짜임새를 갖추게 되면서 능계나 시나위 가락이 탄생하였고 뛰어난 주자들에 의해서 태평소 음악이 발달하게 되었다.



태평소의 장단

태평소의 주장단은 굿거리와 자진모리로 이루어지며, 가락은 대부분 연주자의 성향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주된다.

여기서 ‘굿거리’란 장단이름이 아니고 경기도 능계계통의 태평소 가락중,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부른 음악이란 뜻으로 널리 알려진 경기민요 태평가와 흡사한 가락으로 짜여져 있다. 서울, 경기, 충청지방 등 주로 웃다리지역에서 부는 가락을 능계가락이라 한다. 남도 쪽으로 내려오면 주로 육자배기조의 시나위가락을 부는데, 능계가락이 똑똑 끊어지는데 비하여 시나위는 관악기가 그러하듯 쭉 이어서 붙어준다. 영동지방의 가락으로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벚노래’ 같은 민요의 율조를 메나리 가락이라한다. 이장단은 구슬이 통통 튀듯 소리나는 점이 특징이며 전체적으로 구슬픈 느낌이지만, 요란한 타악기 반주로 높은 음역의 선율을 큰 음량으로 발산할 때는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태평소의 음역

운지법은 향피리와 비슷하다.

태평소는 기본적으로 임-남-황-태-중의 5음계 구조로 운지를 하며 시나위 가락에서는 남 대신에 무음을 사용한다. 그리고 고선음은 편의상 중으로 표기하여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본음보다 반음이 낮다. 시나위에서는 중음 그대로의 음가를 사용한다.



자료사진

태평소의 운지법에는 내려잡기(시나위연주), 올려잡기(능계가락), 치켜잡기(시나위연주) 등이 있다. 운지를 할때의 관의 균형은 주로 왼손 새끼손가락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의지한다. 다섯개의 지공을 이용하는 5관청(올려잡기)은 능계가락이나 경기민요를 연주할 때 적합하고, 6관청(내려잡기)은 시나위 연주에 적합하다.

태평소는 쓰임새의 특성상 주로 고음이 사용되며, 한 옥타브 반에 이르는 음역을 가지고 있다.

1. 태평소의구조

태평소는 관대를 포함하여 전체의 길이는 약30센티 정도이며, 악기의 구조는 크게 동팔랑, 관대, 동구, 서의 네부분으로 나눈다.

생김새는 윗부분이 좁고 아래로 내려갈 수록 넓어지는 원추형(깔대기)모양의 나무관대에다 끝부분에 나팔꽃 모양의 동팔랑을 달아 소리를 증폭 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지공(指孔)은 위쪽에 일곱, 아래쪽에 하나가 뚫려있다. 관대의 위쪽과 아래쪽에는 구리합금으로 된 동구(銅口:일명 조롱목)와 동팔랑을 끼우도록 되어있다. 동구 끝에 갈대로 만든 작은 서(舌)를 꽂아입김을 불어 넣어 소리를 낸다.

태평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구이며, 일차적으로 악기가 좋고 나쁘고는 바로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동

구가 잘 만들어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동구(銅口)는 가능한 한 좋은 것으로 골라야 한다.

2. 태평소 각 부분 설명

1) 동팔랑(銅八郎)

동팔랑은 구리합금을 재료로 하며, 대취타에 사용되는 나발이나 서양악기의 트럼펫처럼 소리를 증폭시키게 하기위하여 깔대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색깔은 동팔랑, 은팔랑, 금팔랑 등이 있다.

2) 관대

아래로 내려갈 수록 넓어지는 원추형(圓錐形)모양의 나무관대를 사용한다. 좌측에는 동팔랑을 끼우고 맨 우측에는 동구를 끼우도록 되어있다. 관대는 단단하고 야무질 수록 좋기 때문에 대추나무나 뽕나무, 장미나무, 회양목 등을 재료로 사용한다. 요즘은 흑단을 주로 사용한다. 관대에는 8개의 구멍이 뚫려있다. 이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땀으로 소리가 나는 것이다.

3) 동구(銅口)

동구를 조롱목이라고도 하며 관대와 서를 연결하는 구실을 한다. 맨 우측에 서를 꽂는다.

4) 서(舌)

원래 작은 갈대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만들기가 까다롭고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요즘은 음료수용 빨대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3. 태평소 서(舌) 만들기

빨대로 서를 만들때 주의할 것은 아무 빨대나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적당히 야문 것이 좋으며 자기 악기의 취구에 끼워지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부는 가락에 따라 능계는 조금 짧게, 시나위는 조금 길게 잘라주면 그 가락의 맛을 더 잘 살릴 수 있다.

서 만들기 과정

- 1) 취구에 먼저 빨대를 쪼개 적당한 길이로 잘라낸다
- 2) 서의 끝부분을 살짝 눌러 납작하게 만든다.
- 3) 서의 윗 부분에 가는눈(250이상)의 사포로 골고루 문지러서 자체가 펴판처럼 잘 펴도록 한다.
- 4) 서의 양끝 귀통이를 가위로 살짝 잘라준다.
- 5) 취구에 다시 꽂아 소리를 내보고 알맞은 소리가 날 때까지 사포로 골고루 다듬는다(너무 많이 갈면 달라붙어 막혀버리거나 좀 불다보면 '서'가 깨지거나 잘 상하니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 배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조금만 갈아 두껍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잘 만든 '서' 하나 열 장구 안 부럽다!

요즘 시중에서 쓸만한 빨대 구하긴 하늘에 별찾기, 구멍가게나 허름한 시골상점의 먼지 쌓인 곳을 뒤져라. 잘만든 남의 '서' 욕심은 인지상정, 그러나 애써 만든 내 '서' 만하랴!

4. 정리하는글

태평소의 특이할 만한 사항은 종묘제례악에서 선왕들의 무공(武功)을 칭송하는 내용인 정대업중에서 소무, 분웅, 영관 등 3곡에 반드시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악기의 소리가 커서 주로 야외에서 사용되었지만 요즘에는 실내에서 타악기 장단에 맞추어 새납 시나위로도 연주가 되고 있다.

■ 좋은 태평소 고르는법

- 1) 먼저 관대의 색깔을 보라. 단단하고 짙은 색(밤색 계열)이 좋다.
- 2) 흑단이 아닌 일반 나무로 된 악기는 되도록 사지 말 것(일반 나무는 침을 먹고 잘 갈라짐)
- 3) 관대가 너무 가늘고 약한 것은 피하라(모양만 예뻐서 목직한 소리를 낼 수 없다)
- 4) 취구가 너무 작거나 굵은 것은 피한다.
- 5) 일차적으로 악기가 좋고 나쁘고는 바로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동구가 잘 만들어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동구는 가능한 한 좋은 것으로 정확하게 만든 것을 고른다.

《악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인 것이요, 허(虛)에서 발(發)하여 자연(自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血脈)을 뛰게하고 정신을 유통(流通)케 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음악을 듣고 느낀 바가 같지 않음에 따라 소리도 같지 않아서, 기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날려 흠어지고, 노(勞)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거세고, 슬픈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애처롭고, 즐거운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느긋하게 되는 것이니, 그 같지 않은 소리를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은 임금의 인도(引導)여하에 달렸다.

인도함에는 정(正)과 사(邪)의 다름이 있으니, 풍속(風俗)의 성쇠(盛衰)또한 여기에 달렸다.

이것이 음악의 도(道)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크게 관계되는 이유이다》
- 악학궤범 서문중 -

하마터면 영원히 멸실(滅失)될 뻔 하였던 우리의 고유문화가 70여년 만에 다시 복원되어 88 서울 올림픽 때는 대규모의 대취타 부대가 개막식에 등장하여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피리, 태평소 명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공적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재미있는 태평소] - 이건희 편저 한소리국악원

[가슴에 불지르는 소리 2005 태평소 교본]

- 거제교육풍물연구회 "푸리샘" 박병준 편저

문학작품과 과학적 상상력

박 명 자 |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시인

현대 21세기는 과학이 모든 물상의 가치를 선도하며 우리 삶의 중심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과학은 나아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보다 편의를 제공하며 암벽같은 시대의 문을 열어 나아가고 있다. 중세에 신에게 바치는 모든 경배행위가 그 시대문화요, 예술이었듯이 현대물질문명, 그리고 대중화시대에 이르러 오직 이상세계 단계로 접근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과학이 앞서 가며 모든 패러다임을 시프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과학 입국의 기치를 내 걸고 국가적 역량을 과학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자칫 문학과 과학은 서로 상반된 가치관에 의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인간활동의 모든 영역이 모두 문학의 테마가 될 수 있다면 과학은 이미 우리 문학속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실제 작품 창작에서 상상력은 중요한 요소를 여러문학 원론에서 밝힌바 있지만 이제까지 문학의 테마는 상상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부인 할 수가 없다.

상상력은 그럼 어디서 오는가. 인류문화발전의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큰 발명가들의 뒷발을 열어보면 거기 상상력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상상력이란 과거 체험의 뒷발에 피우는 싹이며 꽃이다.

체험의 바탕에 기초한 이미지가 시공간을 원활하게 왕래하면서 창작의 나래를 펴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력이 이념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승화라고 말한다. <승화>

란 인간활동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엷센스같은 것은 행위라고 볼수있다.

또한 상상은 어디까지나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정신 작용이며 공상이나 망상은 파괴적이고 무질서한 부정의 시각으로 볼수있다.

그리하여 원활한 상상력은 인간의 내포적 언어와정을 주도하는 정신활동인 <미>지향의 창조세계라고 본다.

사이버공간과상상력

요즘 인터넷의 발달은 상상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수많은 정보는 사실과 사건들 현상과 가상 사이의 구분이 모호 할때가 있다.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극대화한 <반지의 제왕>등 수많은 애니메이션 작품과 공상과학 콘텐츠 작품들은 과거 비현실적 상상의 소산들이다. 요즘 첨단미디어 발명품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한 밤 자고 나면 새로운 멀티미디어 제품이 우리 눈을 현란시키는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문학적 상상력이 과학발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학과 과학은 관계가 먼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다. 요즘 이론이 과학적 체계에 성립되지 못한 문학, 신화, 전설 등이 비현실적 옛이야기 정도로 밀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학은 사물의 외연적 현상을 위주로 분석 적용하는 지적 활동이며 진리



탐구의 물질세계이다.

그러나 문학은 인간본위의 활동으로서 인간이 주체화되는 이야기들이다. 과학을 하드웨어라 한다면 문학은 소프트웨어적이라고 할수 있다. 영상매체의 급속한 발달은 디지털영상조작에 의하여 전혀 다른 창작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다.

얼마전 이목을 집중시켰던 <쥬라기공원>, <쥬스> 등은 컴퓨터 이미지 합성을 통한 기술이 가세한 것들이다.

상상력과 과학 소설

지금 세계 각 나라는 국가적 운명이 걸린 생명과학 각종 DNA 시험을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다. 어느 공상과학소설에서는-

어느 별에서 괴물인간이 나타나 지구인간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분자생물학은 가공할 세계로 급변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DNA조작으로 지구상 모든 동식물 심지어 인간까지 복제 또는 대량 생산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또는 인간과 동물의 합성에 의한 <카이메라>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터넷에 의한 첨단정보화 물질은 세계를 하나로 묶는 동시 수십만명 지구인 개개인 정보를 간단히 열어 볼수도 있다. 조지오웰은 이미 과학소설 <동물 농장> <1984년>등에서 인간사회는 비밀 정보망에 의하여 철저히 사생활이 감시당하며 세계는 곧 물질만능주의 사고방식으로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온다는 예견을 한바 있었다.

공상과학소설의 탐미 H웰즈

공상과학소설의 전범을 보인 자가는 영국의 웰즈이다.

웰즈가 1895년 <타임머신>을 발표했을 때 세계독자들은 탄성을 올렸다, 또 영화로 상영되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경이와 공포에 떨었다. 이 소설에 이어 과학소설의 중흥을 이루게되었고 <시간 여행>이라는 용어도 나왔다. <타임머신>은 광속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인데 이 물체를 탄 주인공은 미래 80만년후의 세계를 가보고 퇴화한 인류의 모습을 보게된다. 다시 3천

만년후의 세계를 가보니 이미 인간은 멸망하고 갑각류 같은 생물들이 우글거리더라는 내용이다.

웰즈는 계속하여, 〈화성과의 전쟁〉, 〈달나라 최초인간〉, 〈우주전쟁〉 등 과학소설을 발표하였다. 웰즈는 이후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 시킬것인가?' 하는 존재론적 의문 앞에 고민하게 되었다 결국 기계문명이 계속 발달하여 첨단기술이 세계를 지배하면 인간은 더욱 비인간화되고 소박한 인간의 행복은 상실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과학주제 작품

* 5주간기구여행, * 해저 2만리 *타임머신 *화성과의 전쟁 *아름다운 신세계 *루공 마카르 *표본실의 청개구리 ** 달나라여행. *땅속 여행 *마드랜 패라 *루공마카르 *파스칼박사 * 테레즈라캥

과학적 상상력과 현대시

현대시창작에서 과학적 상상력은 주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시에 반영된 과학적 상상력은 우주적 제재를 다루거나 상징적으로 응축시키면서 자유자재로 아득한 시간을 거슬러오르기도한다. 대체로 시에서는 거창한 미래 사회의 극한적 상황과는 다르다. 생태학적 상상력과 인터넷을 다룬 작품이 대거 나타나고 있다.

『인간이 버린물 바다에 흘러들어
고기는 병신이 되고
새끼제비 죽은 것 보고 놀라
갑자기 눈이 어두운 어미 제비』

번영의 폐수 <김광섭>

『무뇌아를 낳고 보니 산모는
몸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느낌이다.
젖을따라 흘러내리는 허연 폐수와
배꼽이 매달린 비닐곤 들
저 굴뚝과 나는 간통한게 분명해』

공장지대 <최승호>

『나의 분신이며 왕국인 내 아바타가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간다,

나의 아바타가 너무 많아 때로 두달이 넘도록

그를 만나지 못한다,

나는 거룩하거나 위대한 사람 대열에

문득 끼어 거대한 지구왕이 된다,

수많은 아바타와 이메일 주소와

나만의 쇼핑왕국을 가지고』

김 신영 <인터넷 왕국>

상보적조화를 위하여

시와 소설작품을 통하여 과학이 어떻게 작품속에 구체화 되는가 살펴보았다. 문학과 과학의 대비점들도 검토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내면적 상상력을 주도하는 문학예술이 다분히 외연적 접근을 일삼는 과학보다 앞서가면서 인류문화 발전에 공헌해왔다는 것을 확인한다, 처음 문학적 분야에서 창조적 모티브를 제공하면 그 후 과학자들이 물질적 실험등 노력으로 새로운 창조물을 구현하는 순서를 밟아 왔다는 것을 역사에서 보았다.

20세기 과학자와 문학가는 거의 다를 바 없다고 한 에바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상상력은 문학의 모체요, 자연과학은 상상력의 소산이다. 정신과 물질의 조화가 문화발전의 바탕이듯 문학과 과학은 상보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하겠다.

따라서 문학가는 과학에 대한 보다 넓은 식견을 익히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지나 애정어린 접근이 필요하다.

속초예술

속초의 소극장 건립을 바라며

춘천 예술 마당의 극장 및 아트센터 신주쿠 Tiny Alice 극장활용에 관한 보고서

김 귀 선 | 춘천 예술마당
최 소 영 | 신주쿠 Tiny Alice 극장
석 경 환 | 신주쿠 Tiny Alice 극장

목 차

1. 오늘날 극장 개관에 따른 예산 낭비와 그에 따른 문제점.
2. 춘천시의 시민 친화적 정책과 건물의 재활용.
3. 일본 Tiny Alice 극장의 운영 (도쿄 신주쿠)
4. 결론

1. 오늘날 극장 개관에 따른 예산 낭비와 그에 따른 문제점.

춘천미술관 21C가 되면서 예술계에 변화 중에 하나로 각 시·도 마다 예술 극장이 건축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극장뿐만 아니라 아트센터라는 이름으로 각종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설립하고 있다.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각 지방행정 단체 산하의 국·공립 예술극장이 개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에 예술을 계층화 했던 것에서 탈피하고 좀 더 보편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수요자(시민)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많은 극장이 세워지기는 하였으나 비어 있는 날이 더 많게 되었다. 또한 1000석 이상의 대극장의 객석을 채우기 위해 예술성보다는 비주얼적인 오락성에 집중을 하다 보니 조명, 의상, 음향, 각종 효과에 치중하여 예산만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건물유지를 위한 비용과 수많은 인력 또한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성을 검토하기위해 우리는 춘천시의 정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봄내 극장 전경



춘천미술관

2. 춘천시의 시민 친화적 정책과 건물의 재활용

일단 춘천은 축제의 도시라는 점을 밝힌다. 봄내 종합 예술제, 소양강 문화제, 춘천 애니 타운 페스티벌, 막국수 축제, 춘천 인형극제, 춘천 국제 연극제, 춘천 마임 축제 등 1년에 무려 일곱 가지의 다양한 축제들이 열린다. 이러한 다양한 축제를 매년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춘천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때문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시민들이 문화 예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과 끊임없이 지역문화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춘천시의 축제는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랑스의 아비뇽 연극제와도 비교되는데... 이러한 지역 예술 축제의 발달은 머무르는 예술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변화하는 예술에서 출발 한다. 또한 참여한다는 것이 페스티벌에 목적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자(시민)을 위한 연극이어야 하는 데, 우리나라의 극장들 대부분은 수요자들이 극히 재력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다. 한 편의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10만원이란 돈을 투자해야하고, 이름 있는 배우를 보기위해 5만원을 투자해야한다면 하루에 5만원을 버는 사람이 과연 이런 공연들 볼 수 있을까... 값비싼 공연만이 예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봄내극장 무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 친화적인 것이 아닐까 싶

다.

봄내극장 객석 2008년 1월 17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춘천시의 예술마당으로 향한다. 낙엽은 다 떨어지고 눈도 녹지않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마임의 집과 미술관으로 향하는 발길들이 보인다. 봄내 극장은 공연이 없어서인지 몇몇 staff들만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축제기간에 올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지만 아무도 없는 쓸쓸한 모습은 아니었다. 춘천 극단 도모의 사람들도 한 둘 지나쳐 가고 우리는 황운기 대표님의 안내에 다시 한번 봄내 극장을 둘러본다. 원래 교회건물이었다는 봄내 극장은 아트센터의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다. 객석은 2층으로 되어있고 2층은 삼면이 객석으로 되어있다.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과 비교한다면 조금 작은 규모이나 형태는 비슷한 형태의 극장이다. 2층 갤러리는 유리창으로 둘러져 있는데 교회건물의 형태가 남아 있는 점이라고 생각되었다. 극장의 천장은 제법 높아서 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어보였다. 무대는 트러스트 형태의 무대로 다양한 형식을 공연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천장의 그리드는 기존 극장들에 비해 넓이가 넓어보였으나 작은 무대에 객석위의 그리드까지 활용함으로써 공간의 활용이 탁월해 보였다. 물론 처음 봄내 극장이 개관하였을 때는 이러한 조명시설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마임의 집



봄내극장 무대



봄내극장 객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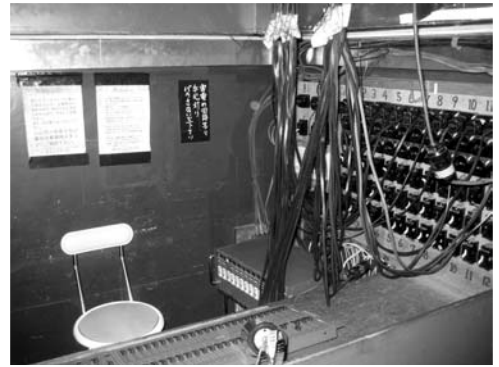
한다. 재개관 당시 더 보완한 것이라고...

흔히 말하는 예술극장의 기준에 딱 맞는 형태의 극장은 아니지만 이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손때 묻은 검은 마룻바닥... 조금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각종 못들이 박혔다가 뽑힌 자국들이 있지만 이 무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렸던가 라는 생각만이 들게 한다. 이 정도면 비록 신축 건물의 반질거리는 나무 바닥은 아니지만 여느 극장의 값비싼 system을 지키는 수위아저씨는 없지만 봄내 극장에서 연극을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흔적들 때문에 결코 질 낮은 극장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교회였고 저 예산으로 시작한 봄내 극장이지만 지금은 춘천 시민들 가슴에 남아있어 사라져서는 결코 안 되는 극장이 되었다.

3. 일본 Tiny Alice 극장의 운영 (도쿄 신주쿠)

올해 12월 초 기회가 되어 도쿄의 한 국제연극제를 참관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앞서고 현대연극의 형태가 들어 온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앞선 일본이기에 그들의 국제연극제를 개최하는 극장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컸다. 다행히 우리가 도착한 날은 춘천 극단 DOMO가 내일로 다가온 공연준비를 하고 있었다, 극장에 처음 도착 하였을 때 이곳이 극장이라는 그 어떤 화려한 표식도 있지 않았다. Tiny Alice극장은 신주쿠의 작은 골목 지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극장 이름을 보면서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생각났다, 토끼가 들어간 굴처럼 초라한 입구를 지나면 뭔가 화려하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공연장을 생각하였지만 그 안은 그냥 토끼 굴 같았다. 좁은 공간에 어둡고, 시설 또한 오래되고 과연 이곳에서 연극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관객이 찾아오기는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연 팀 또한 지붕이 너무 낮다, 회선이 부족하다 등의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다. 정말 그냥 토끼 굴 같았다. 하지만 이런 공간이지만 그들의 공연스케줄은 가득 차 있었다, 본 Alice Festival (앨리스 페스티벌)2008 연극제는 도쿄 신주쿠 소극장 타이니아아리스 가 주최하는 국제연극제로 1983년부터 시작된 연극제로 세계의 도시에서 주목을 받는 극단이 참가하는 연극제로 올해는 서울의 극단 청우와 부산연극연구소 그리고 춘천 극장 입구의 DOMO 극단과 중국에서 참가하였으며 작년에는 이라크 극단이 참가한 국제연극제이다.

본 연극제는 일정 기간 동안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Tiny Alice 극장입구와 내부

기존의 연극제와는 달리 시간을 1년 가까이 나누어 행사를 치루는 연극제로 기존의 관객과 극장을 이용하는 극단을 배려하고 새로운 연극을 보고 싶은 관객들에서 꾸준하게, 새로운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앞서 말한 대로 극장의 사정 상 많은 팀이 공연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잘 해결하였으며, 기존연극제의 재정문제등도 생각한 새로운 형식의 연극제를 보았다.

공연 시 많은 관객이 객석을 메웠다, 물론 그들은 100석이라 하지만, 나와 같은 신체사이즈를 생각하면 50여명 정도가 적당할 정도 이지만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공연에 대한 홍보물이나 현수막 등을 보지 못했지만, 기꺼이 3000엔, 3500엔의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공연을 보면서 생각했다, 연극은 좋은 시스템, 쾌적한 환경, 화려한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연극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언제라도 관객은 들어올 것이라고. 몇 백억, 몇 십억 짜리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극장은 극장대로의 목적과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극장을 지어서 관리하는 건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에 외면당하는 극장들이 늘어나고 세금 먹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작아도 그 목적에 부합한 곳이라면 그곳이 더욱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iny Alice극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단 100여명 관객이라도 그 공간 안에서 포근함을 느끼며 무대에 선 그들과 같이 호흡하는 무대가 왜 없는 것일까?

시민을 위해서 불러오는 가수들 몇 명만 안 부르고 투자를 한다면... 시민들이 언제라도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재물 따지 부치기 위한 건물이 아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연극인들은 하나같이 돈을 많이 벌면 소극장을 하나 짓는다고 한다, 그만큼 절실하고, 필



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직 연극인 중에 로또 거액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서 소극장이 생기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시에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그런 공간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그곳에 약간의 투자만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이 펼치고 시민들이 즐기는 문화공간은 생길 수 있다.

토끼를 따라 들어간 앨리스는 신기하고 멋진 여행을 하고 온다, 우리가 필요한 소극장도 초라한 굴 일지언정 우리는 그 안에서 카타르시스와 기쁨을 그리고 예술적 포만감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토끼가 들어갈 굴이 없다...

4. 결론

춘천 예술 마당에 속한 미술관, 마임의 집, 봄내 극장, 도쿄의 Tiny Alice극장 등은 저예산으로 꾸려감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1960~70년 대학로에서 이루어졌던 소극장 운동처럼 소규모 이지만 활용도를 높은 예술 극장이며 타 지방 자치 문화에 좋은 예가 될 것 같다. 허물어져가는 건물을 이용하여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어졌다는 것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 자체가 시민 친화적 예술품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속초예술

한국무용

권 오 돈 | 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 사무국장

한국무용의 어제와 오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사전적인 한국무용의 역사를 소개하기 이전에 부채춤을 떠올려 본다. 아름다운 한국무용무용으로 사랑받고 있는 부채춤을 우리는 흔히 전통무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지만 한국무용 중 부채춤은 전통무용이 아니라 근래의 창작무용 중 하나로,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대회 때 세계 민속예술축전에서 선보이면서 많이 알려졌다. 화려한 궁중 여성예복의 당의와 구슬 등으로 장식한 족두리를 머리에 쓰고 부채를 펴고 접으며 화려한 춤사위와 선을 가지고 추는 부채춤은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보이지만, 각국 특색의 무용이 소개되는 자리에서도 한국무용의 화려함과 역동성이 배어나는 안무로 외국인에게 한국적 이미지가 부각되며 각별한 관심과 반응을 나타나게 한다.

한국무용을 대별하면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무용에는 궁중정재와 민속무용이 있고, 창작무용은 1920년대부터 시작된 신무용과 1980년대에 발전한 창작무용이 있다. 이 모든 무용은 시대에 따라서 서로 관련을 맺고 변화·발전해왔다. 거기에는 흥과 멋과 우아함이라는 우리의 미적 정신이 담겨 있으며, 가(歌)·무(舞)·시(詩)가 일체를 이루는 종합적 예술창조로 오늘날까지 거듭 발전해오고 있다. 상고시대의 제천의식(祭天儀式)에서 비롯한 한국의 무용은 당초 음악과 무용이 미분화 상태에 있어서, 이를 아울러 ‘악(樂)’이라 불렀다. 고구려 무용의 단편(斷片)을 무용총(舞踊塚) 벽화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중국측의 사적(史籍)에도 고구려의 호선무(胡旋舞)·광수무(廣袖舞)·지서무(芝栖舞) 등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다. 백제무용에 관한 국내의 기록과 자료는 아직 전무하나,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보면, 백제인 미마지가 오(吳)에서 기악무(伎樂舞)를 배워 일본에 전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또 《삼국사기(三國史記)》악지(樂志)에도 중국의 《통전(通典)》을 인용하여 백제의 무용의상 등에 관해 기록한 대목이 있으나, 그 춤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전혀 헤아릴 길이 없다. 신라의 무용은 무악(舞樂)을 장려한 진흥왕(眞興王)시대에 융성기를 맞았다. 552년(진흥왕 13)에는 가야국(伽倻國)의 우륵(于勒)이 신라에 돌아와서 국원(國原: 충주)에서 계고(階古)·법지(法知)·만덕(萬德)에게 가야금과 노래와 춤을 각각 가르쳤다. 또한 신라 때 당(唐)의 악제(樂制)를 채용한 일도 무용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었다. 신라의 특기할 만한 무용으로는 검무(劍舞)를 비롯하여 무애무(無哀舞)·도솔가무(兜率歌舞)·처용무(處容舞)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신라 고유의 무용 외에도 서역과 중국에서 전래된 가면극(假面劇)인 오기(五伎)가 있는데, 그 모습을 최치원(崔致遠)이 한시로 묘사한 향악잡영5수(鄕樂雜詠五首)가 《삼국사기》에 전한다.

고려시대로 접어들자 신라의 유풍을 이어받은 팔관회

(八關會)와 연등회(燃燈會)가 국가적인 행사로 거행되고, 이와 함께 가무도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가무의 종류도 아악(雅樂)·당악(唐樂)·속악(俗樂:향악)으로 나누어졌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1073년(문종 27) 2월에 여자 무용수 진경(眞卿) 등 13인이 답사행가무(踏沙行歌舞)를 추었으며, 또 그 후에 포구락(抛毬樂)과 왕모대무(王母隊舞) 등을 추었는데, 이것은 모두 중국에서 전승된 당악정재(唐樂呈才)에 속하는 가무이다. 고려시대 무용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기록에 나타난 무용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 일무(佾舞)에는 무무(武舞)와 문무(文舞)가 있으며, 정재(呈才)는 향악정재와 당악정재로 구분된다. 조선시대에는 종래의 예능을 계승함과 동시에 부흥을 시도하였다. 궁중의 여러 행사에는 가무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무악을 관장하는 곡악서(曲樂署)가 설치되었다. 조선의 무악은 세종·세조에 의해 정리 발전되고 성종대에 집대성되었으며, 익종은 김창하(金昌河)와 수십 종의 정재를 새로 창안했다.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춘앵전(春鶯傳)이 대표적 작품이다. 보태평(保太平)·정대업(定大業) 등의 일무의 동

작과 곡을 수록한 《시용무보(時用舞譜)》가 약 200년 전에 편찬되었으며, 홀기(笏記) 등에 의해 조선시대 후기의 무용 내용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진연의궤(進宴儀軌)》《정재홀기(呈才笏記)》 등에 궁중무용 51종과 남무(男舞)·무당무·무동춤·사자무·살풀이·승무·소고무·장고무·한량무·강강술래 등의 민속무용이 기록되어 있다. 향악무에는 꽃을 어르고 꺾으며 추는佳人전목단(佳人剪牧丹), 심향춘(沈香春), 풍년을 기원하는 경풍도(慶豐圖), 태조의 건국을 축하하는 몽금척(夢金尺), 왕조창업의 공덕을 칭송하는 곡에 맞추어 추는 문덕곡(文德曲) 외에도 첩승무(疊勝舞)·초무(初舞)·박접무(撲蝶舞)·무산향(舞山香)·아박무(牙拍舞) 등이 있으며, 당악무에는 수명명(受明命)·성택(聖澤)·하성명(賀聖明)·하황은(荷皇恩)·수보록(受寶) 등이 있다.??민속무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농악과 강강술래가 있으며, 승무·살풀이·한량무·남무·탈춤 등이 있다. 강강술래는 전라도 지방에서 밝은 달밤을 가려 부녀자들이 즐기는 향토적인 군무(群舞)이다. 농악은 상고시대부터 있었다는 설이 있는데, 농사의 능률을 올리고 유사시에는 군





인들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사자무는 조선 고종 때에 궁중에 들어와 처음으로 추었는데 이는 탈춤에서 유래한 것이다. 탈춤은 조선 후기에 성행한 춤으로 가면(탈)을 쓰고 춤을 추며 대사가 있는 극형식을 띠고 있다. 탈춤의 명칭은 지방별로 다른데, 황해도 지방은 강령탈춤·봉산탈춤이고, 경기도 지방은 산디놀이, 경남 지방은 야유(野遊) 또는 오광대(五廣大)로 각각 불려왔다. 남무는 남자와 여자로 분장한 두 사람이 서로 교태를 부리는 민속무인데 주로 기녀 사이에서 성행한 것이다. 한국의 무용은 오랜 세월 동안 종교의식으로, 또는 궁중이나 민간에서 전승되어 오다가 1905년 국립극장격인 원각사(圓覺社)가 개장함으로써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이 함께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1910년 국권피탈이 되면서 무용에서는 또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전통무용은 극장의 공간을 제외하고는 공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무용에 대한 전승이나 발전은 일제에 의해 철저하게 차단되었다. 이 외에 1919년에 다양한 서구의 춤이 도입되어 무대상연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창안된 한국무용이 서서히

일어났다. 1929년에는 일본인 이시이 바쿠[石井漠]에게 사사한 조택원(趙澤元)·최승희(崔承喜)가 현대무용을 한국화한 ‘무용의 현대화’를 표방하면서 신무용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 민속무용에 가장 뛰어난 예인으로 한성준(韓成俊)을 들 수 있다. 한성준은 여러 지방의 민속무용을 정리하고 승무·태평무·학무 등을 창안하기도 했다. 그의 춤들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책정되어 한영숙이 계승 발전시켰다. 1945년 8·15광복 이후 한국은 남·북으로 양단되어 무용계에도 무용의 해석방법·표현법 등을 놓고 커다란 대립이 나타났다. 1950년대 무용은 신무용의 대표적 인물인 최승희의 제자 김백봉(金白峰)의 제1회 무용발표회에서 공연한 부채춤·화관무 등 작품의 경향은 여전히 신무용의 흐름을 유지하였다. 1960년대에는 대학에 무용학과가 생겨났고, 국립무용단이 발족되어 1962년에는 국립극장에서 제1회 무용공연을 가졌다. 그 후 1973년 현 국립극장 건물이 준공되었고, 이때부터 국립무용단과 국립발레단이 분리되어 송범(宋范)·임성남(林聖男)을 단장으로 하여 많은 공연을 했다. 이 시기에 활동한 무용가로는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을 포함하여 김천홍



(金千興) · 김진걸(金振傑) · 최현(崔賢) · 김선영(金善泳) · 김문숙(金文淑) · 김백봉 · 최희선(崔喜仙) · 한순옥(韓筍玉) · 한영숙(韓英淑) · 송수남(宋壽男) 등이 있다. 이들은 무용수뿐만 아니라 안무가로서 1950년대 이후 한국 무용계를 이끌어온 중추적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74년 11월에는 서울시립무용단이 제1회 무용발표회를 가졌으며, 1961년에 창립된 한국무용협회는 한국 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는 각 대학에서 배출된 많은 무용수들의 활동을 예견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해 주었다. 1979년에는 대학민국무용제가 창설되어 창작무용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대한민국무용제는 현재 서울무용제로 개칭하여 14회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1970년대의 변화는 1980년대에 더 한층 활기를 띠어 '무용의 르네상스시대'라 부를 정도로 공연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1920년대 이래 계속되어 온 신무용 위주의 창작무용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창작 예술성을 펼치게 되었다. 연간 100여 회 이상의 공연은 공연공간에 대한 의식변화를 가져와, 대극장 중심의 1970년대의 많은 무용수에게 기회가 주어지

지 못한 반면, 1980년대에는 소극장 · 거리 · 공원 등 다양한 곳에서 공연이 이루어졌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제24회 서울올림픽경기대회 개막과 폐막식을 화려하게 수놓은 한국무용은 우리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이와 같은 의식은 또 다른 전통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문제를 제시했다. 1980년대 한국무용의 발전은 다양한 양식적 측면에도 영향을 주어 내용면에서도 신무용의 미학적 한계인 미나 선의 미적 범주를 넘어선 많은 사회적인 소재들을 선택하게 되었다. 1980년대의 변화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개방과 함께 무용에서도 우리의 것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짚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출처 encyber

속초예술

내가 본 감동의 무대

리처드 용재 오닐의 리사이틀

강 은 희 |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부회장

올해 제가 다녀온 연주회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무대를 소개하려 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무대였기에 아직까지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뛴답니다.

그 무대는 바로 리처드 용재 오닐의 무대였어요.

몇 년 전 TV(인간극장)를 통해 소개된 그에게 반하여 프로그램을 녹화해 두었었지요. 그것을 수업 시간을 이용해 몇 번 아이들에게 보여주었고 그가 쓴 자서전 '리처드 용재 오닐의 공감'을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것이 그에 대해 아는 전부였습니다.

연주회 장소가 이곳 속초가 아닌 서울이었기 때문에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바이올린이나 첼로보다는 연주회가 적은 비올라 독주회라는 것과, 그동안 즐겨들던 CD와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용재오닐이란 사람이 궁금했고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무엇보다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에 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마력과 매력을 함께 가진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포근한 안식을 선물하는 산타였구요.

‘오늘 연주는 과연 어떨까, 그 자신이 만족할 만한 연주를 할까? 무대에서의 그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객석에 앉아 그가 나오길 기다리던 저는 그가 무대위로 등장하면서부터 곧바로 빠져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얼굴에 좀 마른 듯한 몸, 그리고 검정색 슈트.

검정색 슈트가 그토록 잘 어울리는 사람은 글썽요,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곤 꼭 찬 객석을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올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

아!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게 보이던지요.

뿐만 아니라 곡이 끝날 때 마다 객석에서 보내는 박수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

객석을 향해 깊이 인사하면서 얼굴에는 보기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는 떠날 줄 모르는 따뜻한 미소.

억지로 만들어 내는 미소가 아닌 마음이 만드는 환한 웃음.

저는 이날 반 했다죠.

리처드 용재오닐이란 청년에게.

이제 나이 얼마 안 된 청년이 저렇게 인간적인 따뜻한 미소와 겸손은 어디서 배웠는지 잠시 궁금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그를 크나큰 사랑으로 길러주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게 아닐까 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모르실까봐 잠깐 말씀드리자면,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용재오닐의 어머니가 미국으로 입양되어 사랑으로 길러진 후 세월이 흘러 용재 오닐이 태어났다고.

그 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용재오닐의 어머니를 사랑으로 키우신 것처럼 손주도 사랑으로 길러 내셨답니다.

제가 용재오닐의 책을 읽으며 가장 감동받은 부분이 바로 외할머니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랫스 때 마다 상당



히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직접 운전하셔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곤 하셨습니다. 손주가 배우고 싶다는 음악을 위해 몇 시간이나 걸리는 그 먼 곳을 ……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사랑은, 고스란히 되 물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새삼스레 또 한 번 깨달았죠.

평소에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을 첼로나 바이올린곡으로 들으면 상당히 덩어리 큰 슬픔이 느껴지곤 했는데, 이 날 들려 준 용재오닐의 ‘자클린의 눈물’은 물론 애틋함도 있지만 동시에 크게 자리 잡은 깊은 포용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가 연주하는 동요 ‘섬집아기’는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지요.

음반으로 들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답니다.

따뜻한 안식의 느낌으로 말이죠.

제 주위 음악 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체로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해 운동을 좋아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용재 오닐이란 청년에게 또 한 번 놀란 것은 평소 10마일 정도 마라톤을 꾸준히 한다는데요.

연주 당일인 이날도 숙소인 조선포텔에서 남산 국립극장, 한남대교를 지나 강남까지 왕복 달리기를 했다고 하여 인내와 투지가 얼마나 강한 청년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가 가진 달란트 중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론, 연주는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위해 늘 달리기를 한다는 그의 말은 듣기엔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실제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무대에 서 있는 연주자들을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한 가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지요.

객석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무슨 생각으로 인사 하는지를.

객석 구석구석 까지 골고루 주욱 살펴보며 활짝 웃는 그를 보며 웬일인지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리차드 용재 오닐은 한마디로 겸손과 파사로움이었습니다.

용재오닐이 말하기를 비올라는 첼로처럼 무겁지 않고 바이올린처럼 가볍지 않으며 두 악기의 장점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악기라는군요.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흡사하다는, 인간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비올라의 소리는 이 날 그러나 너무나 힘이 넘치고 따뜻하였답니다.

연주하는 그와 똑같이 닮은 소리였지요.

마지막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였는데 용재 오닐의 뒤편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연출되었답니다.

용재오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 공연 때마다 반드시 연주한다던 그 곡, 무슨 일인지 함께 협연하던 실내악단과 호흡이 안 맞으며 흐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지? 분명 연습 했을텐데… 뭐가 문제인지지?’

보던 저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객석에서 저 혼자 애 태우는 사이 정작 무대 위에 용재 오닐은 실내악단 앞을 이리 저리 여유 있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악단 주자들과 다시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그들이 당황하지 않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악단이 따라 올 때 까지 포기하지 않고 음을 길게 늘이며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저 젊은이 참 멋있구나!

순간 감탄하였답니다.

그 모습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따스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자 안달하던 제가 얼마나 창피 하던지요.

자신의 독주회장에서 반주자인 그 들에게 맞추어 주는 쉽지 않은 여유와 배려.

그리고 연주가 끝나자 악장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허리 굽혀 인사하는 겸손함까지

그의 행동 하나 하나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객석에 불이 켜지고 연주가 모두 끝났는데도 계속 박수가 이어졌답니다.

이 날의 관객은 다양한 연령층이었는데 저 뿐 아닌 모든 관객이 감동을 받은 게 분명하였지요.

저도 계속 박수는 치고 있었지만 그의 등장을 기대한 건 아니었구요. 제가 이날 받았던 큰 감동에 대한 조그마한 표시였답니다.

이미 객석의 불도 들어와 연주회는 끝난 분위기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한마음이 되어서 치는 박수 소리에 그도 감동했는지 다시 한 번 무대에 나오더니 앵콜 곡으로 한국 더 연주하였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 날 제일 큰 감동으로 다가 온 그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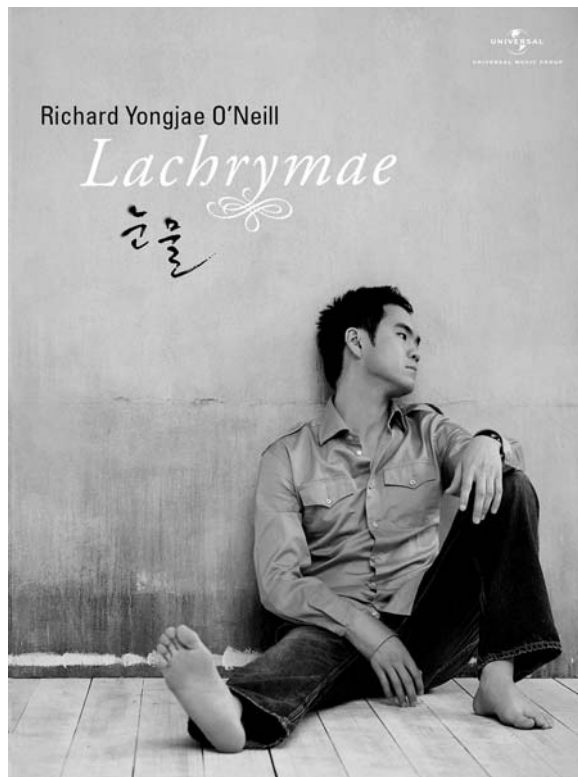
리차드 용재오닐.

그는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수 많은 연주자들 중 가장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땅에 닿도록 허리 숙이며 가슴 벅찬 듯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지그시 올려놓은 채 인사를 합니다.

너무 벅차다는 듯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아주 활짝 웃으면서.

그리고 객석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눈길을 보내더군요.



그 따뜻한 눈빛 때문에 그를 바라보던 제 가슴이 뭉클 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감격합니다.

저 젊은이 진짜 멋지다...

돌아 오는 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애뜻하고 부드럽지만 힘이 있고 동시에 섬세함 까지 있는 그의 연주 속에는 그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용재오닐 특유의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답니다.

연주회장에서 들은 것은 그의 연주였지만 반한 것은 그의 인품이었습니다.

용재 오닐의 음악은 그 따뜻한 인품과 인성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진정한 예술이었던 겁니다.

올 가을 유난히 몸과 마음 지치고 힘들었는데 커다란 선물을 받은 느낌입니다.

위로와 안식이라는 선물을...

속초예술

교육연극 - Process drama

황 현 중 |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굴렁쇠 단원

교육연극강사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이라고 한다. 아마도 교육은 인간이 사고의 동물로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이고 영구히 행해져야 할 근본 철학이 되는 것이다. 교육연극 또한 교육을 위한 연극이며, 연극을 통한 교육이다. 교육연극은 1900년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나라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교육연극의 주된 지향점은 ‘교육’이고 연극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및 방법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결국 교육연극은 전인교육이란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연극을 매개체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교육연극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놀이(play), 드라마(drama), 연극(theatre)의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연극은 일반 무대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결과물인 공연의 예술성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오로지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나는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해결점을 찾는 교육적 기능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육연극은 참여자가 자유로이 자신의 창의력을 표현하는 과정 중심의 연극이다. 공연은 목표라기보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공연이 끝난 뒤 후속작업(follow up)인 토의, 수정, 재공연을 반복하며 그 과정과 이후의 행동변화가 목표인 것이다.

교육연극의 현장은 공연장이 아닌 교실이나 노인, 결혼 이민자 여성, 이주노동자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심지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처럼 다방면으로 교육연극을 가치적 측면으로 볼 때 참여자에게 신뢰감 함양, 집단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활동 가능성, 언어 능력 신장, 언어와 동작을 통한 자기 표현력 향상, 타자의 입장 이해 증진, 상상력 개발, 연극적 문학 작품의 이해력 향상, 이야기와 상황 연기를 통한 학습 강화 효과, 제한된 환경 속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공동체 활동 체험, 사물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학습, 다른 학습 형태의 동기 유발, 감수성 개발, 긴장 해소 학습, 비판력과 집중력의 신장 등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연극은 기능주의 교육의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예술교육과 놀이교육의 비중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연극은 학생들의 단혀진 상상력과 그 표현의 길을 인도하고 나아가 공동체적 삶속에서의 가치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에도 말이다.

허나 제도적인 문제로만 치부될 것은 아니다. 현재 수많은 교육 연극강사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혹은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교육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교육연극에서 간과할 수 없는 과정중심의 교육효과 보다 결과중심의 공연위주의 수업을 지향

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도 그것을 절실히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연극이 재량수업이나 창재의 수업일 경우 연극을 교육에 필요한 활용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 교육 과정 속에서 연극적 양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나 교육연극관련 서적을 보면 연극놀이 혹은 수업 관련 자료들이 많이 나돌고 있다. 또한 요즘 연기전공 관련대학에서도 기초연기수업에 일명 연극놀이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 이에 많은 연극강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연극놀이 안에 들어있는 교육적 가치는 배제한 채 일차적인 재미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연극강사들도 연극놀이를 진행하면서 어떤 목표와 수업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지만 그 또한 정확한 계산과 방법체계가 제대로 서있지 않다면 연극강사가 목표로 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에 교육연극의 하위갈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process drama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을 분석하여 좀 더 체계적인 교육연극수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므로 본 지면을 통해 process drama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실제 적용의 예를 살펴보고자한다.



process drama는 흔히 과정드라마라고 한다. 즉 참가자가 교사(drama teacher)와 함께 스스로를 위해 자신을 참여하게 하는 만들게 하는 집단 드라마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process drama의 참가자 들은 미리 씌어진(pre-written)드라마 대본 학습과 공연에 참여하기보다는 그 자신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연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간적 공간적으로 펼쳐 보인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에게 드라마 속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극적 가상의 공간이라는 상황과 함께 그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위 혹은 마력을 가진 인물로 변화시켜 자연스럽게 상황 안에서 자신이 극 속의 중심인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역할은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통하여 학생들을 드라마의 내용과 연결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드라마 내용에 대해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연극예술의 양식을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고 개인적인 정서나 언어 혹은 사회적인 윤리, 구성원으로서의 발달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process drama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해 줄 효과적인 방법은 최고의 드라마 경험을 가능하게 하도록 교사가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드라마가 좋으면 좋을수록 학습효과도 그만큼 좋아진다는 것이다.

process drama의 설계원리는 1. 주제/학습분야(Theme) 2. 상황(context) 3. 역할(context) 4. (frame) 5. 표시(sign) 6. 전략(strategies) 이다. 이는 process drama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과정에서도 이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체계적인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 아래의 글은 아직 국내에는 번역이 안 된 process drama에 관한 책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원서를 분실하였기에 제목이나 저자의 이름을 기입하지 못함을 양해바란다.

1. 주제/학습 영역

인간경험의 어느 영역에 학생들이 개입하는가, 그리고 어떤 특별한 면에 그들의 학습의 초점을 맞출 것인가?

모든 다른 교육과정 영역 혹은 과목에서처럼, 설계과정의 처음부터 교사는 정확하게 교사의 수업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중국 훈춘제1실험소학교에서 일일교사를 하는 필자

교육의 책무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에서 무엇을 습득하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그런 학습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최고의 계획에 관하여 사실과 학문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더구나, process drama는 항상 인간의 중요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교사는 주제나 학습영역을 인간적 차원의 관점에서 정의, 한정할 필요가 있다.

2. 상황 주제를 개발하기 위해 어떤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넓게, 추상적 혹은 개념적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 주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신중하게 선택된 장소, 시간 그리고 드라마의 액션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루어진 한정된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 적당하게 선택된 극적 상황(dramatic context)을 허구적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학생들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주제를 개발할 기회를 갖게 된다.

3. 역할 드라마 속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누구로 되는가?

드라마에서 기본적 활동은 역할을 맡는 것이다. - 다시 말해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으로 상황을 개척하기. 드라마 상황 선택-드라마의 허구적 상황 선택-을 한 후 교사는 아이들의 드라마 속에서 맡게 될 역할을 결정한다. 교사는 그가 정한 각각의 배역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주제에 개입할 적절한 이유를 갖도록 해야 한다. 교사역할은 process drama에서 기본적,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사는 자기가 그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를 또한 결정해야 한다.

4. 구조 드라마에서 긴장구조를 설정하기 위해 배역이 가져야 할 관점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배역(role)은 얼마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process drama의 전달은 대화이다. 그래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process drama에서 그것은 드

라마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배역이 가지는 관점(point of view)이며, 분위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참여자들에게 이야기꺼리를 제공한다. 구조(frame)의 한가지 면은 드라마의 긴장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드라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프레임의 두 번째 측면은 Dorothy Heathcote가 ‘경험속으로의 방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종종 드라마에서 우리는 참여자들이 감각적으로 관여하기를 바라거나 혹은 그들 자신의 순간적인 경험과는 거리가 먼 상황으로 개입하기를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참여자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찾을 필요가 있다. frame의 두 번째 측면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데 이것은 ‘거리를 두는 구조’(distancing frame)라고 알려져 있다.

5. 표시(sign) 이벤트에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인공물, 개인물품, 소리 이미지 등등이 필요한가?

process drama를 설계할 때 우리는 학생들에게 흥미 있고 자극적인 학습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신중하게 시작한다. 우리는 분명한 학습결과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설계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경험의 한 가운데에서, 학생들의 관심사를 학습의 중심으로 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sign을 사용하는 것이다. 인공물, 개인용품-서류, 이미지, 그리고 3차원 물건-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중요성을 가져다주며, 아이들의 관심을 끌게 해 주며, 그들로 하여금 수업의 정확한 목표를 향해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해 준다.

6. 전략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결합으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드라마를 만들고, 드라마가 발생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숙고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다양한 특질을 알고 있는 교사가 선택할 전략은 학생들에게 예술에 대하여 배울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드라마의 내용을 개발하고 제시하고, 그 드라마에 대해 숙고할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실제적용예 - 설악고등학교 1학년 / We Start 아바이 마을 초등학교 어린이

〈Process drama 수업계획안〉

황 현 중

Theme / Learning Area / Context / Role / Frame / Sign / Strategies

Theme 행복나라 만들기

Learning Area 행복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존재한다

Context 2108년 지구의 종말을 막기 위해 모인 각국의 전문가들

Role 교사(joker) - 지구수비대 리더(황박사) 학생 - 각국에서 모인 행복 만들기 전문가들

Frame 미움과 이기심으로 행복이 사라져 버린 지구 지구 수비대에 맨 인 블랙(Men-In-Black) 외계인한테서 지구를 파멸시킨다는 메일(경고장)이 옴.

지구를 지키려 각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열띤 토의. 지구를 지키기 위한 모든 비용과 지원은 지구수비대에서 책임을 진다.

지구에서 살릴 수 있는 조건은 우선적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

Sign 효과음 - 독수리 오형제 타이틀 음악, 불길한 음악

편지, 메모지, 펜, 나비넥타이

Strategies *지구 종말의 이유와 결과를 조각상 만들기(정지동작 - 제자리에서의 움직임 - 짧은 언어)

*소리로 장면표현하기(종말 후 홀로 남겨진 자신을 상상하고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고 반응하기)

*행복해진 지구 CF 찍기

속초예술

연극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김민혁 |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극단 굴렁쇠 단원

글쓰기 전에

글을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렇게 한 단체의 한해를 정리하는 자료에 실릴 글은 더욱 그렇다. 연극과 관련된 글이면 된다고는 하지만 막상 쓰려하니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이 글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연극을 하며 느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야기해보겠다.

들어가는 말

연극!!!

문득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연극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궁금하다. 연극인이 아니고, 예능과 관계없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으로 배우, 무대 정도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연극장이는 가난하다’ 같은 말이 우선 떠오를 것이란 생각을 한다.

누구든 그러하듯이 자신의 전문분야거나 관심분야가 아니면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나 역시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는 연극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몰랐다. 내가 접한 연극은 중1때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본 [칠수와 만수]라는 작품을 본 것 뿐이었다.

나의 연극과의 첫 인연은 고등학교 입학 후 특별활동으로 선택한 연극반이 학교축제 때 연극을 공연하기로 하면서부터다. 그때 「스크루지」라는 작품에서 ‘젊은시절의 스크루지’가 내가 처음 맡았던 배역이었고, 이때부터



배우라는 직업을 동경하게 되었던 것 같다.

결국 고3이 되면서 배우가 되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연극영화과 진학을 준비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아서 인지 응시한 학교에서 전부 떨어지고 말았다. 당연히 재수를 하게 되었고, 다음해 다시 연극영화과에 도전했다. 다행히 경민대 연극학과에 합격을 할 수 있었고, 드디어 나의 연기력을 알아봐주는 학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 당시엔 인정할 수 없었고, 인정하기 싫었던 사실이 하나있다. 바로 난 연기를 잘 못한다는 것이다. 몇몇 선생님들에게서 “넌 에고가 너무 강해. 그걸 깨지 않으면 연기하기 힘들어.”라는 소리를 들었다. 요즘도 문득문득 그 에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곤 한다. 그래도 지금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난 연기를 잘 하지

는 못한다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연극하면 배우를 떠올리기 때문에, 연극을 하려면 연기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배우 밖에 몰랐고 그래서 배우를 꿈꾸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학을 다니며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 연극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배우만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한 편의 연극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생하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세 달 이상 연습을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연출, 무대감독, 무대 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 음향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기획팀, 무대팀, 조명팀, 분장팀, 조명오퍼레이터, 음향오퍼레이터 등 정말 많은 STAFF들이 배우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공연하는 것이다.

난 배우가 되고자 연극학과에 갔었지만, 연극공연의 다양한 스텝분야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스텝동아리의 회장을 하면서 배우의 매력에 아닌 연극이라는 그 자체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배우의 능력보다는 스텝으로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고싶은 말

-연극은 마약

처음 연극을 시작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연극만 바라보고 살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진학을 위해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했던 것인데, 그 길이 더 힘든 길이었고, 평생가야 하는 길이 된 것이다.

2003년 대학을 졸업한 후 난 연극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 남파라면 당연히 가야하는 군대를 세 번이나 연기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랬을까. 차라리 빨리 다녀 올 걸.’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사실 난 정말로 강하게 중독되어 있었다. 이놈의 연극에 얼마나 푹 빠져 있었는지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내 머리 속에는 ‘연’, ‘극’ 이 두 글자만이 들어 있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초반의 혈기로 무엇이든 닦치는 대로 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이룰 수 있다고 정말 강한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래서 군대에 가기 전에 무언가 이루어놓아야만 한다는 설부른 목표만을 탐닉했던 것이



다.

여기에 한 몫을 한 사람이 장진 감독이다.

대학 졸업 후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작품의 조연출을 하면서 장진 감독과의 친분이 있는 연출 형으로부터 장진감독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었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목표하는 인물모델이 장진 감독으로 설정되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군대를 연기하면서 더욱 연극 작업에 몰두했었다.

사실 장진 감독을 인물모델로 삼은 이유는 별 게 없었다. 장진 감독이 28세에 연출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기에 그보다 이른 나이에 연출로서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27세 이전에 대학로에 흥행작을 만들어 내고 싶었고, 그 뒤 신화처럼 대학로에서 사라져 입대하는 상상을 했던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린 꿈을 꾸는 것 같다. 지금은 연극에 푹 빠져 지낼 수 있게 해준 즐거운 에피소드로서 추억하고 싶다.

연극작업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작업이다. 배우들은 신체를 이용해 인물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자신과 싸워야하고, 연출은 상상하는 그림을 배우들을 통해 무대화시키기 위해 무수히 사고하고 요구해야하며, 각자 스텝들은 연출의 의도에 맞춰 배우들의 연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예술적인 감성들을 표현해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서로의 생각과 표현정도를 조절해야하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며, 혼자서 서류작업을 하는 것보다 몇 배에서 몇 십배의 스트레스가 쌓이는 작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는 공연이 끝남과 동시에 대부분이 사라져 버린다. 이 순간이 연극인들이 연극에 중독 될 수밖에 없는 카타르시스인 것이다.

나도 이런 카타르시스를 수십 번 맛보았다. 공연 작업을 하며 때로는 감당 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이번 작품이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공연이 끝나고 나면, 아쉬움과 다음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다음 작품 준비에 들어가고는 한다.

지금의 난 연극을 하지 않고, 연극 외의 것을 하며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아니 상상조차 하기 싫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 일 것이다. 어쩌면 연극을 하지 않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다른 일에 도전할 용기가 없는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연극은 구름

2003년 내가 대학을 졸업 할 당시에 전국적으로 50~60개의 연극·영화 관련학과에서 4천 여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다. 지금은 더욱 많아져서 1만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이처럼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연예인을 꿈꾸며, 연극·영화 관련학과에 진학을 한다. 그리고 대다수는 그 꿈은 꿈일 뿐이라는 현실을 깨닫고 포기해버린다. 그들은 대학 졸업 후 전공과 상관없는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

나와 함께 졸업한 동기 80여명을 보면 꾸준히 연극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20명이 안 된다. 졸업 후 5년이 지난 지금 25%도 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일을 택한 친구들은 경제문제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나도 몇 번의 흔들림을 경험해 보았다. 하지만 아직은 연극에 대한 열정이 더 크기에 계속연극을 한다.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난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싶었고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알려진 기성극단에는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들어 소규모의 극단에서 주로



작업을 했다. 그건 전통이나 규범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내 성향 탓이었다.

그렇게 난 창단하는 극단의 창단멤버, 조연출, 교육연극워크숍 진행, 아동극 배우, 무대스텝, 조명스텝, 조각상 퍼포먼스 등 연극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선배 연극인과 선생님들을 만나며, 연극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연극에 빠져있던 나였기에 그저 신나고 흥미롭기만 했다.

한 번은 나에게 기회가 온 적이 있다.

대학로에서 공연 할 「총각파티」라는 작품의 연출제가 그것이었다. 기획자와 얘기가 끝나 원만하게 진행되거나 싶었는데, 출연할 배우들이 입봉(첫연출)하는 나이 어린 연출과 뭘 믿고 같이하냐며 거부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사실 그 당시 24세의 날 뭘 보고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저 조금 연극에 대해 안다고, 말발 세우는 것이 다였으니 말이다.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 영화사에도 들어갔다. 기획 일을 도우며, 영화사에서 만드는 극단 창단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부극단 일에 관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영화사에서 홍보 중이었던 배창호감독의 '길'이라는 영화가 광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는 덕분에 영화제에 VIP로 참석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좋은 시간이었고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고 싶던 연극의 중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방황하며 뜬 구름을 잡았던 것 같다.

-연극은 큐피트

연극 작품을 만드는 동안 작품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그렇게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즐겁게 작업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깊은 우정이 생기기도하고, 때로는 사랑이 싹트기도 한다. 그렇게 같은 작품을 연습하다가 연인이 되어, 결혼에 골인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다.

2005년 2월 말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속초로 왔다. 오자마자 극단 굴렁쇠의 '늙은 도둑 이야기' 작업에 스텝으로 참여 할 수 있었고, 이때 배우로 참여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공연연습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술자리도 함께하게 되었으며,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으며 더욱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공개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한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다양했다. 축하해주며 잘 사귀기를 바래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간혹 우려의 시선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4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연극작업을 하며 2년 5개월의 연애기간을 보내고, 작년 2007년 10월 27일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에 골인했다.

지금은 연극인 부부로 1년 조금 넘은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다.

처음 만난 때부터 4년여를 함께 연극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함께 연극을 하고 있기에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함께해서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아내를 만남으로서 연극은 나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준다. 나의 반쪽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사랑을 키울 수 있게 해준 것이 연극이기 때문이다.

- 연극은 지게

사실 연극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풍족한 직업은 아니다. 특성상 월급제로의 운영은 힘들고, 수당으로 수입을 분배해야하기에 일정한 수입을 기대 할 수 없다. 어떤 달은 수입이 전혀 없기도 하고, 어떤 달은 조금 넉넉할 때도 있다. 때문에 체계적인 수입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

런 직업을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위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기도 하다.

그래도 속초의 공연여건은 타 지역에 비해 무척 나은 편이다. 예전부터 고생하시며 애쓰신 선생님들과 선배님들 덕분에 지원사업과 교육사업, 사회문화사업 등의 다양한 공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다른 일을 함께하거나 따로 하는 것 보다 좋은 장점도 있다. 일반직장보다 여유 시간이 좀 더 있는 편이고, 가끔은 단점일 때도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같은 일을 하기에 서로가 힘들어 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알 수 있고, 힘이 되기가 더 수월하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 할 장점은 하고 싶은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경제력이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 1년 조금 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부부는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머지않아 아이도 생길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아내도 연극 일을 잠시 접어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말 어깨가 무거워진다.

연극 말고는 해온 것이 없고, 연극 외에는 모르기에 연극 내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다.

그래서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대예술전문인 조명자격증이다.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으로 국가자격증인데 취득은 쉬운 편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꼭 합격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꼭 필요한데 속초에서는 실무경험을 하기에 여건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1년 정도 서울로 가서 생활해야 자격증 준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걱정이 많다.

아내에게는 그렇게 되면 주말 부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자주 오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거짓말을 한 것 같아 미안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우리 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느끼는 무게감은 어느 누구라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의 여건은 아직 조금 나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현재 그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끝내는 말

자기 생각이 강하고 주장 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며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연극판은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모습의 작은 축소판 같다.

또한 연극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사람 사는 이야기이다. 연극의 내용은 작가에 의해 희곡화 되어진 내용을 다루지만 거의가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연극은 어쩌면 내 이야기 일수도 있고, 내 친구의 이야기 일 수도 있는 것이다.

나에게 연극은 정말 좋은 직업이다. 직접 격지는 못하지만 연극무대를 통해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하면서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연극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예전과 달리 내 옆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는 함께 상의하고, 함께 생각해서 어려움과 시련을 더욱 지혜롭고 쉽게 넘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연극인들은 '연극은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 라는 말을 한다.

그런 면에서 속초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나는 무척 행복하다.

연극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동네이기 때문이다. 힘들다는 연극을 전업으로 하는 연극인이 10여명에 이르고 연극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40~50명에 이르니 말이다.

그리 많지 않은 인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서는 엄청난 힘이 되고 활력을 주는 분들이다. 그분들 덕분에 나는 '파이팅!!!' 한다.

끝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사랑하지 않을까?' 라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글을 마친다.

—끝맺음—

덧붙이는 말

연극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적어 보고자했다.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지금껏 개인적인 내용의 글이라 읽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저 김민혁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연극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자한다는 것을 느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속초예술

아 사임당 그윽하신 님의 발자욱 헤아리며

박 명 자 |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어느새 오동잎 지는 오죽헌 뜨락 오늘따라
 고유한 선풍 감도는 대숲 저 편에서 사임당 님의 그림자
 그윽하신 발자욱소리 아득히 들리는 듯 ...
 은은한 님의 향기 오늘 더욱 그립습니다.

지난 15세기 역사의 오솔길
 조용히 뒤돌아 보면 할래정에 깃드신
 님의 맑은 기개 난초보다 더욱 서늘하오며
 그 시절 연꽃 몇 포기 연못가에 심으신 정성
 정자각에 맴도는 고운 꿈길이셨나요?

밤 으스스도록 지필묵 갖추시고 서안 당기셔
 꽃꽂하신 화두 날리셨으니
 그림으로 <풀벌레, 포도, 화조, 어묵, 매화, 난초, 산수……. >
 글씨로 <육뿔, 초서, 병풍, 해서……. >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섬세한 사실화에서조차
 님의 예리한 감각, 고상하신 성품, 날카로우신 필치
 여기 다시 헤아려봅니다.

님께서 남겨주신 유품 40점
 푹푹이 구비치는 채색 앞에 옷깃 여미어
 님의 정감 음미하오면
 그 당시 오죽헌 뜨락 조용히 배회하셨던
 그 날의 흰 버선발자욱이 눈앞에 다시 어른거리나이다.

또한 님께서는 이 나라 으뜸 어지신 모성으로서
슬하에 아드님 이 이 율곡을 역사적 대학자로
민족의 대성현으로 뒷받침 하셨으며
큰 따님 매창 역시 어머니의 예술혼을 계승하여
바람 많은 이 나라 이 강산에 꽃잎같이
선명한 유작을 띄우게 하셨나이다.

아 사임당 우리 역사에 빛나는 옥함 속 그 이름
부덕과 교양미 두루 갖추신 예술인 사임당.
자상하고 어지신 어머니로서의 사임당.
당당하고 현명한 한 여성으로의 사임당

21세기 우리 사는 시대배경은 모든 분야에서
과학문명의 첨단을 부르짖으며
가속화의 페달을 빠르게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예의지국의 자존심을 잃어가는 듯
혼돈의 와중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모든 여성의 규감이신 사임당이시여 !
부디 이 나라 여성의 표상으로서 영원토록 저희들 혼을 지켜주소서

세세 년년 밝은 조국의 미래를 우리 여성의 손으로 열어가도록
지혜와 용기를 채워주소서.
이 땅의 모든 여성의 어머니이시여 !
부디 국화향 그윽한 옥함 속에 영면하소서

2008년 12월 朴明子 올림

베니스의 노래

지영희 |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누군가 수없이 배를 매었다 풀었을 백향목에 걸쳐 놓은
부르지 못한 노래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햇살을 받으며 골목을 걷는다는 걸
흙들이 담 밑에 기대어 작은 풀뿌리를 간지럽히는 걸
알고나 있을까
좁은 창틀에 걸터앉아
낮선 동양 관광객을 물결처럼 바라보며 전화하던 그녀
골목에서 울리는 발자국 소리의 평화를 궁금해 하거나 할까
젖은 건물 사이 제 흥대로 줄지어 선 백향목
어떤 희망에 심었길래 오래도록 썩지 않는지

골목에서
늦은 밤, 홀로 검은 건물을 두드리며
세상과 교신할 두고 온 노래가
베네치아, 베네치아
새하얀 빛을 물 속 깊이 박는다.

나를 갈다

김 종 현 |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믹서기에 나를 넣는다
스위치 on

살이 갈리고
- 추악한 일상의 파편이 닫힌 공간으로 튀어 오르고

뼈가 갈리고
- 삶의 골다공증이라 갈리기보다는 부서지고

마음이 갈리고
- 비어있는 벌집처럼 허접 쓰레기로 뚱뚱 뜨고

스위치 off

한 컵의
악취 나는 육즙으로 남았다

아무도 나를 마시지 않았다

속초 여자 둘썸은

박 대 성 |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그 속초 여자 둘썸은 내가 해 치울 수 있지
중앙시장 골목이나 아남 지하상가에서
어항 속 금붕어의 지느러미 같은 손을 놀리는 여자 둘썸은

그 여자 둘썸은 내가 해치울 수 있지
대포항이나 먹거리 촌에서 젖은 도마를 닦는 물행주 같은 여자 둘썸은
그 둘을 업을 수도 있고
무등 태울 수도 있지

속초 여자 둘썸은 내가 해치울 수 있지
청호동, 장사항에서 물오징어를 철조망에 흰 뽀스 같이 내다 너는 여자 둘썸은
로또에 맞게 해 줄 수도 있고
그 집 애들을 서울대에 합격시킬 수도 있지

그 여자 둘썸은 내가 해치울 수 있지
동명항, 물치항 방파제를 휘감는 흰 파도를 덩석덩석 안아 내리는 그 여자 둘썸은
전국노래자랑에 일등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동창회 경품도 제일 큰 걸로 들고 가게 해 줄 수도 있지

설악산 기슭에서 숲 가꾸고 사방공사하다 돌아온 손으로 시어미 밥상을 차리는 여자 둘썸은
내가 해치울 수 있지
그녀들의 콧노래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미지처럼 앙코르를 받게 해줄 수 있고
그녀들이 주인공인 ‘속초 여자 둘썸’ 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게 해줄 수도 있지

사십계단, 사이렌 언덕에서 무드 등燈 같은 달을 끌어당겨 놓고
보채는 남정의 희무戲撫 를 묵묵히 받아주는 여자 둘썸은
감기썸은 몸살썸은 궁둥이에 먼지썸으로 툭툭 터는 여자 둘썸은
내가 어떻게든 해치울 수 있지

그들에게 노벨상을 줄 수도 있고
그들의 붕긋한 가슴에 청조근정훈장을 매달아줄 수도 있지

어머니

조 인 화 |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가지를 친다
한파에 맨 몸으로 서 있는 가로수
잎을 다 떨어뜨린 나무의 묵은 상처의 더께를
겨울이구나
우리네 어머니 적 그 어머니의 몸처럼
볼품없이 맞고 선 옹이의 안쓰러움이라니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나무를 심고 다듬는다
가차없이 친다
누군가의 손에 잡혀 중심만 남는 것은
결국은 혼자가 되는 어머니처럼
길을 길이게 하고
푸르름을 눈부시게 하던 몸부림으로
남아있는 나목
잠간이면 지나가 줄 이런 흑한에
손 비비고 서 있는
반짝이는 결단에 매료되어
예감처럼
어둠 속엔 깃발하나 걸려있다

외사랑

고 선 희 |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미칠 것만 같다
그의 눈빛은
나의 말문을 봉쇄했고
나의 심장은 재가 됐다

미시령 굽이굽이 널 찾는다
한 잎 진 골 어디에도 너는 없고
한동안 바람만 인다

재가 된 심장 부활을 위하여
동면에 든다
물오르고 깨어날 즈음
봄일 거야

분주히 짝 내고
수련수련 수풀 키 재는
눈 시리게 푸른 날
상처 위에 핀 꽃

- 속초예총 훈춘국제 문화교류 참가기 -

9년 전 처음 길 연 선구자적 수고에 숙연함

이 은 자 |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2008년 6월29일 오후3시30분

‘뚜우-뚜우, 뚜우...’ 뉴 동춘호는 긴 고동을 울리며 미동했다. 갑판에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던 우리는 혼비백산 주저앉아 귀를 막고 파안대소-----.

등대에서 퍼지는 무적(霧笛)처럼 은은하게 들던 뱃고동 소리였는데, 갑판에서 바로 듣자니 이다지도 엄청난 굉음 일 줄이야. 세상 모든 일이 다 피안(彼岸)과 차안(此岸)의 차이가 있음을 잠시 잊었다. 주저앉은 우리 눈앞에서 영금정 정자가 저 혼자 스르르 물위로 떠가는 것처럼 보였다.

‘제9회 훈춘 국제 가요제’와 문화 교류단 일행은 예총 한기학 회장님을 단장으로 25명, 속초시 부시장 휘하 3명, 통장협의회 25명, 로터리 클럽6명하여 총59명이었다.

배는 왼편에 ‘조도’를 비켜 세우며 남동쪽으로 한 시간여 항진, 설악산이 가물거릴 즈음 북으로 기수를 틀고 항속을 높였다. 우리가 안겨 사는 곳 속초, 열린 안개 속에 멀어져 가는 설악의 준봉들이 잠시면 돌아올 이별을 아련하게 했다. 뉴동춘호는 육중한 몸집의 철제선박이다. 여객터미널에서 본 그 많은 짐들과 사람을 모두 실었다. 자동차, 컨테이너박스, 조선족 상인들의 물품 보따리들까지. 그럼에도 경쾌한 항진이다. 이 놀라운 힘은 기관실과 스쿠류의 역동(力動)에서 온다.

안락한 선실과 멋진 갑판에선 보이지 않는 배 밑창 가

장 낮은 자리에 있다.

문협회원 자격으로 이 길에 동행하는 행운을 얻은 나로선 9년전 이 행사에 착안하고 처음 길을 트고 이제까지 이어온 사람들의 선구자적 수고에 그저 마음 숙연해질 뿐이다.

-자루비노 항으로-



러시아 자루비노 항



북으로 선수를 돌린 배는 공해상에 잔물결을 가르며 시원스레 향진했다.

나는 배 후미 갑판에 섰다. 스쿠류에서 소용돌이치며 밀려나와 길게 자락을 펴는 포말을 보고 있자니 한 사람이 생각났다.

이명준.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서 그는 6.25전쟁포로였다. 포로 석방이란 행운이 그의 앞에 주어졌을 적에 남과 북이 아닌 제 3국 즉 중립국을 선택했던 그가 동지나 해상에서 내려다보던 김푸른 물과 포말이 연상됐다. 그리고 또 한 사람 1.4후퇴당시 흥남철수, 마지막 목선에 다섯 집 가족을 태우고 원산 앞 공해상에서 폭풍우를 넘으신 내 아버지.

이명준은 신발 두 짝 남겨 놓았고 내 아버지는 속초 청대산 자락에 묻혀계시다.

그때와는 많이 다른 시대라 하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서로에게 금단의 땅이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상태로 반세기를 넘겼다. 그 바닷길을 우리가 희희낙락 안락한 배를 타고 거슬러 가고 있다. 손이 닿는 곳만이라도 우리의 동포와 정을 나누고자 가는 길이다.

우리 시각으로 8시까지니 푸른 어두움이더니 8:30분을 넘자 먹물처럼 어둡고, 북으로 갈수록 물결이 거센 모양 밤새 키질하듯 선수가 요동쳤다. 새벽5시경, 나는 마치 부리썰매에 서 있는 듯 했다. 103호 특실은 선수가 정면으로 내려다 보였다. 내 나이를 배려해서 특별히 잡아준 방이라 진행자에게 고마웠다.

멀리 전방에 작은 배(어선?)불빛이 흩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육지를 향하고 있음이다.

뉴동춘호는 이따금 써치라이트를 X형으로 발휘하곤 했다.

칠후 같은 밤, 316해리(海里)공해상을 향진, 아침 6시

경(러시아 8시)섬이 보이고 11시경에 우리는 하선, 입국수속을 거쳤다.

‘자루비노!’ 시적인 항구 이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전방에 속초의 청초호 보다 몇배 넓고 깊은 만이 있었고 어렵프시나마 건물도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정박한 곳은 뚝 떨어진 외항 이었다. 영금정 여객터미널 처럼 그곳 주민들과 곧 대면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 었다. 러시아 통관세는 1인당 6만원이다.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어 놓은 통관 장소에서 우리는 59×6만원이란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만약 나진항을 통해 간다면 354만원은 북한의 수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짝한 마음이다. 동춘호 전체의 세관료를 합산한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일까?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포시에트, 그리고 자루바노항 까지 동해를 향해 천혜의 부동항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통관을 마친 우리를 국경까지 태우고 갈 차는 반값게도 고려여행사 전세 대우 산(産)버스였다. 차는 깨끗한 외형에 커튼과 에어컨이 작동됐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산 중고차에 ‘청량리’ ‘불광동’ 따위의 표지조차 지우지 않고 운행하였다고 한다.

버스는 러시아 국경을 향해 달린다. 70여km의 포장도로를 한 시간 반가량 쉬지 않고 달린다. 도로좌우로 아득히 지평선이 그어져있고, 봉긋한 야산하나 보이지 않는다. 이따금 나무 한·두 그루 박혀있을 뿐이다. 완벽한 초원지대다. 창포꽃과 노란 좁쌀풀 혹은 별노랑이 꽃인 듯 어우러져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땅은 발해의 동경지대였다. 근세에 와선 카렌스키(러시아식 조선인 명칭)의 땅이었다.

일제시대를 피해 북간도로 간 우리 백성이 맨손으로 개간했었다. 그 후에 쓰러 스탈린에 의해 강제추방 당하고 빈 터로 남아있는 땅이다. 그 후예들이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연해주로 돌아오지만 하바로브스키로 유도하지 이곳엔 못 오게 한단다.

잃어버린 역사, 영토, 독립투사의 유랑, 비옥한 초장의 부러움 등 상념에 잠겼다가 어느새

러시아국경, 중국국경을 넘고 장영자(長嶺子)세관에 다다랐다. 마지막 통관을 마치고 장영자 세관 넓은 광장에 나오니 훈춘 시 당국자들과 ‘훈춘 제1실형 소학교’ 교직원 일행이 마중 나와 있었고 비로소 우리는 긴장에서 풀려났다.

우리는 아리랑 호텔에 여장을 풀고 늦은 점심을 했다. 저녁엔 훈춘 시에서 준비한 만찬에 초대 받았다. 석식 후



훈춘제1실험소학교에서 일일교사에 열중한 필자

즉시 하려던 무대셋팅에 차질이 생겼다. ‘영극원’엔 낮부터 진행 중이던 행사 마무리가 늦어져서 강종철 가요제 단장 휘하 8명의 스태프들은 밤 1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다.

7월 1일 오전 9시, 우리는 숙소 근처에 있는 ‘훈춘 시제1실험소학교’를 방문, 백일장과 ‘국제 아동 미술교류’ 시상상을 했다. 함께 가져간 선물들도 전달했다. 곧이어 분야별 1시간 수업을 맡아했다. 일 년에 단 한 시간의 수업으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마는 시작이 반이란 말과 거듭되는 학습의 효과란 말에 의존한다면 전혀 헛된 일은 아니리라.

전교생 1,400여명, 90여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학교는 지금 교사를 개축중이라 1, 2학년만 남아 있고 고학년은 다른 장소에서 수업한다고 했다. 1, 2학년 어린 아이들의 수업 태도가 아주 바르고 발표하는 것이 명료한 것이 인상에 남는다.

저녁 6시30분 시작인데 대낮부터 ‘영극원’ 주변은 사람 물결로 일렁거린다. 표를 못 사서 애를 태운다. 이 가요제는 훈춘 시 뿐만 아니라 길림성 전 지역의 경사다. 가족 나들이요 축제날이다. 입상, 수상한 사람은 신분상 승과 한국 땅에 다녀갈 수 있는 행운도 함께 거머쥔다.

‘훈춘가요제’로 인해 중국 내 소수 민족 중에 조선족들이 갖는 우월감과 자긍심, 그리고 “조국이 우리를 찾아와 눈 맞추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한층 고조된다면 우리

의 수고가 더 확장돼야 하지 않을까.

시간에 맞춰 ‘영극원’ 무대에 조명이 비치고 시그널 음악이 울렸다. 김귀선 사회자가 현지 아나운서 김미화님과 나란히 등장했다. 예심을 거쳐 본선에 오른 출연자는 20명이다. 최고상인 대상엔 ‘돌고 돌아 가는길’을 부른 최용(86년생)이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실력 탓에 심사위원의 최종발표는 오래 걸렸다.

사회자가 물었다. 이렇게 대상을 받았는데 축하해줄 부모님들은 어디에?... “부모님은 한국에 돈 벌러 가 있습니다.” 한국 땅에 돈 벌이 떠나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할 것 같다.

7월 2일 아침 우리는 훈춘시내를 벗어나 연길을 지나고 일송정을 저 멀리 올려다보며 달려서 용정시내 대성



용정시 대성중학교 전경

중학교 정문에 내렸다.

윤동주님의 서시가 돌에 새겨 교정에 서 있었다. 낡은 건물 한 채에 기념관을 만들어 헤이그 밀사의 동선을 표시한 세계지도, 대성학교의 연혁, 독립운동의 족적 등 사료가 잘 정리되어 있었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일정이 아쉽지만 우리는 작나무 숲이 우거진 장백산 기슭을 따라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적지를 끼고 달렸다. '장백산 호텔'에 여장을 풀고 비 내리는 저녁에 내일을 빌었다. 비는 온 밤을 추적추적 내리고 우리의 행보는 중단할 수 없었다.

백두산 8부 능선(?)쯤 까지는 짚차로 가고, 나머지 정상까지 짧은 구간만 걸어서 간다. 속초 청대산 오르기로 다 쉽고 짧은 거리다.

삼대(三代)를 이어 덕을 쌓지 못한(?) 우리 일행은 천지물을 보지 못하고 하산해야 했다. 백두산의 짚차, 2년 전만 해도 일본산 토요타였는데 지금은 순 중국산(현대 겔로퍼 형)이다. 100번 이상의 번호표를 달고 있었다. 산업스파이, 지식(기술) 유출 이런 것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우리의 방만함이 걱정된다.

-안중근 의사를 기리며-



안중근 의사의 항일유적지

백두산 천지를 못 본 아쉬움을 상쇄할 일이 있었다. 방천으로 가는 도중에 얼핏 지나칠 수도 있는 한 마을에 들렀다. 안중근 의사의 숨결이 묻어있는 초가 집 한 채. 의거를 준비할 제 은신하며 힘을 모으던 집이다. '훈춘시 경사진 권화촌 안중근의사 보존회' 이대로 얼마를 더 있을까 싶게 퇴락한 집을 7~8순 조선족 노인들이 순번을 정해, 우리같이 드물게 오는 손님들에게 방명록을 쓰고 현금함에 얼마간 넣고 가는 돈으로 꾸려간다고 한다.

야트막한 울바재 밑에 망초와 꽃향유 어린잎이 하늘거리고 굴뚝가엔 어른 키를 넘는 앵두나무가 가지마다 알알이 빨간 구슬을 달고 있었다. 앵두 한웅큼씩 받아들고 기약 없는 인사로 그곳을 떠났다.

돌아오던 날 장영자 세관을 지난 러시아 땅 자루노비향으로 가는 도중에 또 한 곳에 잠시 머물렀다. 행운이었다. 단지(斷指)동맹 유지의 표석 앞에서 잠시 묵념을 올렸다.

'1909. 2. 7 안중근 의사 거사를 앞두고 김기오, 배규삼, 황병길... 12인은 이곳 크라스키노 마을에서 태극기에 왼쪽 무명지를 절단. 피로 ... 생략' 같은 글이 러·한국문자로 새겨있었다.

이 표석은 2001년 10월 18일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이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건립했음을 명기하고 있다. 오석과 화강암으로 핏방울 형상이다. 지금은 '주알로예' 농장이 입구에 옮겨다 놓아 더 이상 훼손은 피하게 됐다고 한다. 나라가 미처 손을 못 쓴다 해도 뜻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이렇듯 우리 역사의 자취를 지키는 일은 귀한 일임에 틀림없다.



동춘호에서 바라본 속초항

7월 6일 우리는 동명항에 내렸다.

무더운 날씨였다. 엄청난 장비에 많은 식구가 동행했다. 예정한 대로 모든 행사를 다 치렀다. 한사람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았다. 큰 땅 덩어리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에 다녀오면서 우리에게 오직 사람만이 자원이란 생각이 들었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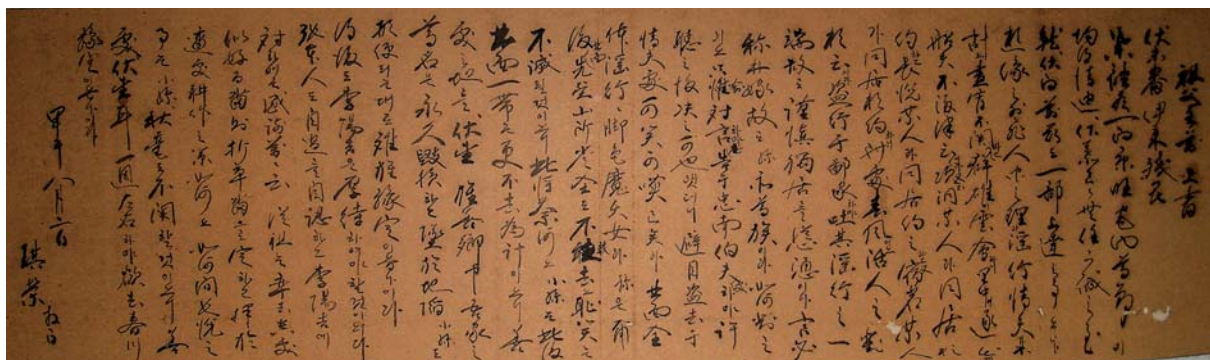
속초예술

나의 작품 나의 서예觀

김 광 희 |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명예회장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초대작가

강원서예대전집행위원장



부친 김기영의 遺墨 - 증조부께 보낸 초간문

1. 서예에 입문한 동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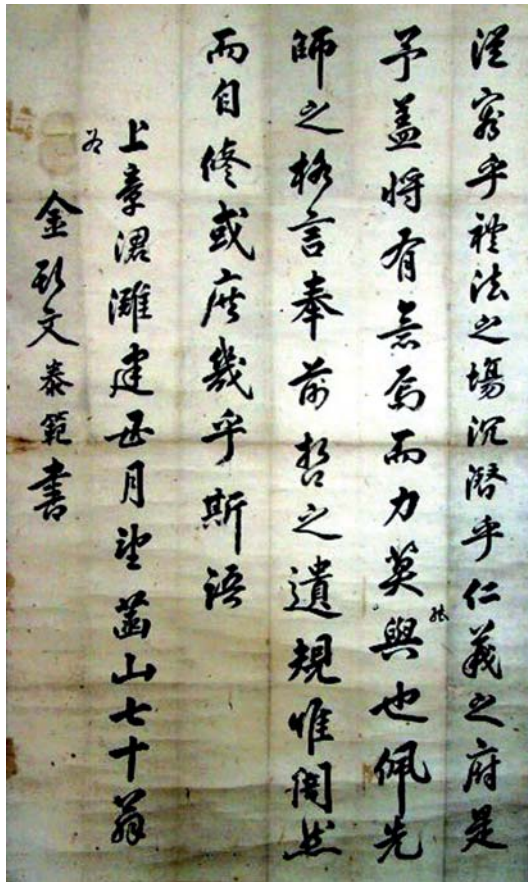
어려서부터 서예와 친숙 할 수 있었던 것은 유학자이며 한의사였던 조부(金泰範)님과 역시 유학자이며 강원도청에서 공직생활을 하셨던 부친(金琪榮)께서 평소 “一日不讀書하면 口中生荊棘”이라 하시며 또한 “선비의 집안에서는 벼루에 먹물이 마르면 아니된다”고 하시면서 항상 책읽기와 서예를 생활화하시는 것을 보면서 유년기를 보내 서예에 호기심이 많았었는데 춘천시 춘천초등학교 3학년 재학 시 담임선생님께서 휘호대회 학교대표 참가자로 천거하셔서 서예에 입문하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서예를 하게 된 것은 속초고등학교 재학 당시 미술선생님이셨던 고순재 선생님께 그리기와 서예를 사사 받으며 강원도 학생종합경기대회 서예부문에 3년간 연속 상위입상을 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20여년간 봉직했던 교편(敎鞭)생활을 접고 서예를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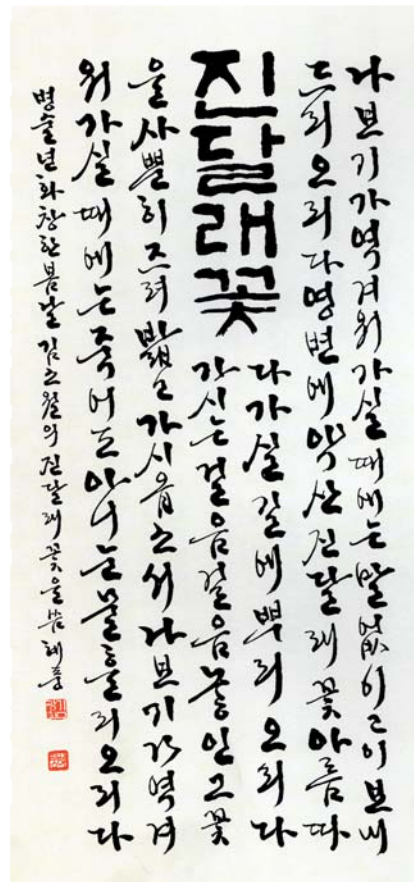
연구소에서 제자들과 서법을 논하며

으로 삼고 있다.

2. 서예란 무엇이며 또 한문서예와 한글서예의 다른 점은?



조부 김태범의 遺墨 - 김치문씨에게 쓴 초고



김광희 진달래꽃 -조화체(필자의 개발체)

서예란 중국에서 발생한 예술형식의 하나로서 동양의 독특한 필기도구인 붓을 사용하여 글씨를 심미적으로 서사(書寫)한 것으로 한국 및 일본에 전래되어 한자뿐만 아니라 해당 나라의 글씨체를 예술적으로 종이 위에 표현하는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정신수양의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까지 서(書)로 불렸으나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서도(書道)로 잠시 지칭되다가 8·15해방 이후 독립된 예술분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서예로 부르기 시작했다.

문자와 서예를 구별한다면 문자는 언어의 부호로서 그 목적이 어느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고, 서예는 그 문자의 표현에 있어서 미의식의 활동을 보기 위한 글씨로서 아름다운 면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는 어디까지나 문자를 떠나 또는 모필(毛筆)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서사(書寫) 용구로서 붓의 성격은 변화하여도 아름답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경필(硬筆)로 쓴 글씨, 또는 등사, 인쇄로 된 문자는 서예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면 안 된

다고 할 수 있다.

한문서예와 한글서예의 다른 점은 표의 문자인 한자와 표음문자인 한글을 서예로 표현했을 때에는 한글서예 쪽이 형상성에 커다란 핸디캡이 있어 표음 문자인 한글 서예를 형상성과 접목시키는 것이 큰 과제이며 이 핸디캡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한글 서예가 들이 하고 있다.

3. 서예의 매력은?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심상(心象)을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붓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 중에서 가장 형이상학(形而上學)적 예술이라는 데 매력이 있으며 서양화를 그만두고 서예에 빠진 것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출강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점은?

현재 성인반 7개처 학생반 2개처에 출강하고 있다. 각각의 제자들에게 점, 획의 기초 표현법을 충실하게 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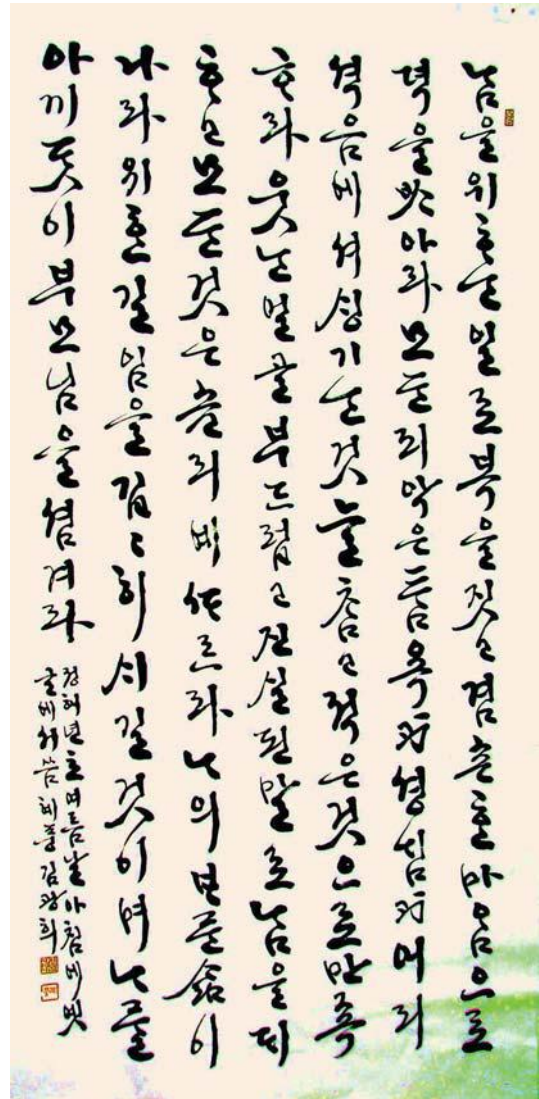
득토록하며 정확한 용필 및 운필법을 익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강조한다. 그리고 잘 쓴 글씨 보다는 좋은 글씨가 무엇인지 체득하도록 하며 “잘 썼다”는 표현은 지양토록하고 좋은 글씨를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한다.



김광희 구약성경잠언에서-현대서예와 접목

5. 추구하는 휘호는?

서예가가 쓴 휘호가 타인에게는 읽지 못하는 분방자의(奔放恣意)의 자태일지 모르나 그 서예가에게는 읽는 문자로서 미의식 표현의 휘호인 것이다. 서예의 조형적 요소로서 형태와 선질(線質)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표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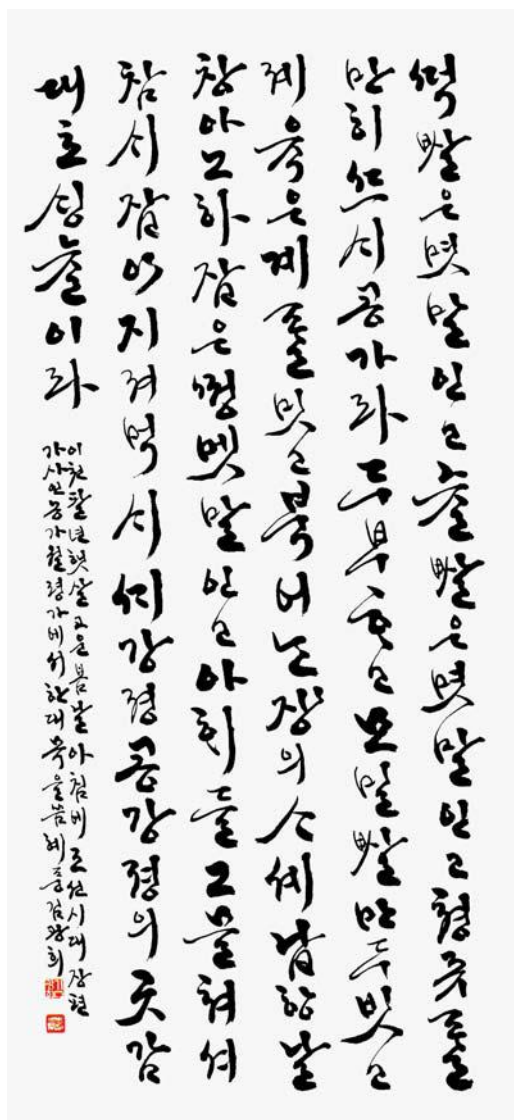


김광희 옛글 - 조화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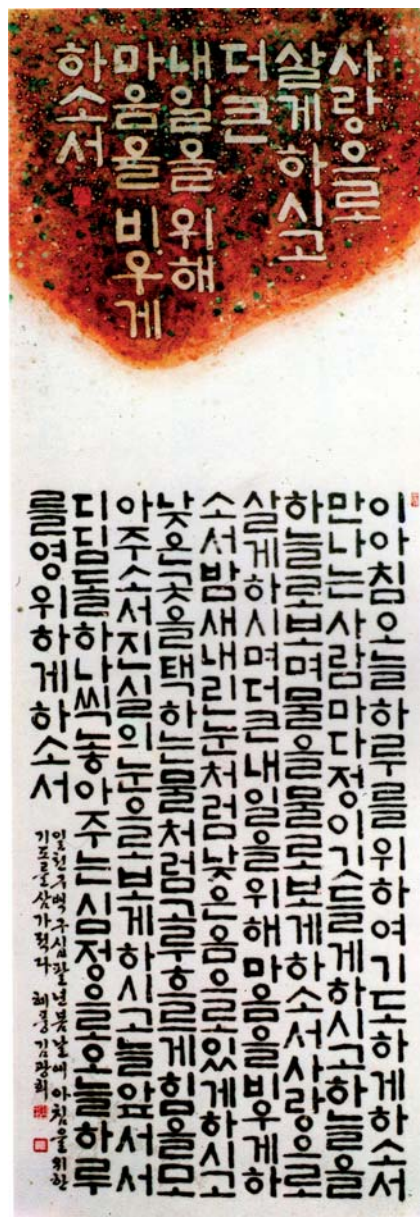
있어서 깊은 관련이 있으며 휘호는 선의 예술이라고 본다. 서예의 선은 회화의 선과 같이 어느 물체의 형상을 표현하는 윤곽선이 아니고 비구상적인 선이며 구상성을 떠난 선으로 필압(筆壓)과 속도로서 사출된 서예가를 상징하는 선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추구하는 휘호는 물체의 형태 또는 대상의 연관성을 그리는 휘호가 아니고, 인간성과 연관성이 깊은 즉 심화(心畵)를 추구하는 것이다.

6. 서예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

각종 법첩들을 모두 다 임서하기엔 시간과 능력이 부족하며 전업 작가로서 작품제작에만 진력하여야 하나 후학지도 등에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는 현실이 힘들다.



김광희 농가월령가12월령-조화체



김광희 아침을 위한 기도-현대서예와 접목

7.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작품과 수상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2003년 동아미술제(동아일보사 주최)에 입선 되었던 상춘 김광희 농가월령가 - 판본체, 조화체곡으로 규격은 90cm×200cm로 정극인 선생의 상춘곡을 본인이 개발한 고유서체로 제작한 작품이며, 수상은 홍익대학과 이화여자대학 미술대학장에게서 각각 받은 지도표창이라고 하겠다.

8. 앞으로 꼭 한번 남기고 싶은 작품은?

정철의 관동별곡 전문을 글자 한자당 크기를 50cm정

도로 한 대형작품을 남기고 싶다.

9. 서예에 입문하려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서예의 길은 어렵고 긴 길이며 왕도가 없는 길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많이 보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며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 할 때 자아실현의 성취감을 조금씩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법고창신 할 때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게 되어 서예를 시작하게 된 보람을 느낄 것이다.

속초예술



김광희 상춘곡 - 판본체, 한문 병서

혜풍(惠風) 김광희

우)217-806 속초시 교동 925-17 3층 혜풍서법연구소

033)635-2996 / 635-3755, 016-447-2996

<수상>

1. '92 강원도서예상, '97 속초시문화상(문화예술부문) 수상
2. '08 세계평화문화예술대상(예술부문) 수상
3. 미술·서예 지도표창 20회 수상(주한인도대사, 내무부장관, 국회문공위원장, 홍익대학교미술대학장, 이화여자대학교미술대학장 등)

<심사>

1. '07 윤곡 서예, 문인화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2. '06 동아예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3. '06 단오 전국서화대전 서예부문 심사위원장 역임
4. '01, '07 대한민국한글서예대전 심사위원역임(2회)
5. '99 허균, 허난설헌 전국회화대회 심사위원 역임
6. '93~'01 신사임당회화대회 심사위원역임(6년간)
7. '00 강원도서예대전 심사위원역임
8. '01~'02 강원서예대상전 심사위원역임(2년간)
9. '06 탄허 대중사 함양 전국회화대회 심사위원 역임

<전시>

1. '02 주 독일 한국대사관 초대전(독일 베를린)
2. '98 환동해권 4개국 미술초대전(일본 동경)
3. '01~'02 국제서도예술전(일본 동경)
4. '02 한·중·일 서도전(일본 동경)

5. '02 FOUR NATIONS SECOND INTERNATIONAL ART EXHIBITION(헝가리 Debrecen)
6. '02 한,중서예교류전(중국 요령성)
7. '02 강원도·일본돗토리현 교류전(일본 요나고시)
8. '93 지방서예가초대전(예술의 전당 주최)
9. 2003 전북 세계서예비엔날레 특별전 초대출품
10. '07 동북아5개국 미술작품전(일본 도토리현)
11. '08 서울미술관개관기념 3단체 초대작가전

<역임>

- '97~'98 강원연목회장, '98~'01 강원도서예가협회 회장, '00 강원도미술협회 부회장, '98~'02 강원도예협 회장 '00~'01 설악제 예술축전위원장, '94~'02 속초예총 부회장 '94~'03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장, '05~'06 강원서예대전 초대작가회장 '06~'07 강원서예대전운영위원장

<현>

강원서예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초대작가
강원서예대전 집행위원장, 한국미협속초지부 명예회장
혜풍서법연구소장



작가가 들려주는 「나의 작품」



나 어릴적 꿈 (10F)



호정 조 정 승

- 호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 전라남도 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 인천시 미술대전 특선
- 공무원 미술대전 특선
- 자연, 그리고 한국화 정신헌(문예진흥원 미술관)

속초시 교동 옥토아파트 202

☎ 018-258-1665

개구쟁이 벚들과 가재도 잡고 알몸으로 물장구도 치던 곳,
 옛 기억들을 더듬으며 긴 스케치 여행을 떠난다.
 오늘도 대설주의보가 내린 날이다.
 향리의 시냇가와 나무, 산은 옛날, 그대로다.
 지붕이 기와로 바뀌고,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생겼다.
 살포시 내린 눈꽃이 더없이 포근한 어머니 품 같다.
 백발 팔십 어머니는 아직도 건강하게 향리를 지키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았지만,
 대자연의 위대함을 붓으로 표현함은 아직도 부족하기만 하다.
 버들강아지 피는 날 다시 오리라 생각하며,
 오솔길 따라 발자욱을 남기며,
 다음 여행지로 발길을 재촉한다.



진 금 희

- 2007 세계 막사발 장작가마 축제
- 중국 치박시 전시 및 워크샵
- 2008 제43회 중국 국제도예학회대회전시 및 워크샵
- 강원도 미술협회전
- 강원현대도예가회원전
- 중국 치박시 도자박물관 작품소장
- 한국미술협회, 강원현대도예가 회원
- 현, 이수도에운영, 도학초등학교 도예강사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 2리 465-40
- ☎ 011-9799-5695

숫대-기원

숫대의 발생은 우주나무(cosmic tree)하늘새(sky birds)의 결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 자체는 땅 속 깊이 파고드는 뿌리로써 지하계까지 이어져 있고 솟아오르는 식물의 생장력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뻗어오르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상·중·하 세 개의 수직적 우주층을 연결하는 우주축으로 적합한 것이었다. 우주나무는 우주층의 교통로써 우주의 중심인데 이때 각 우주층을 왕래하는 하나의 사자(使者)로서 새가 등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주 나무에 새를 얹힌 것은 결국 우주 중심의 역할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셈이된다.

숫대 위의 새는 대개 오리나 기러기로 일컬어지며 이는 물새로써 천상, 지상, 지하(수중)를 오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정한 주기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철새여서 초월적인 세계와 인간세계를 넘나드는 신조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숫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수단이며 지혜와 믿음의 소산이기도 하다.

옛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이며 언제나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는 질서와 조화의 세계인 마을이 신들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마을사람 스스로가 창조해낸 숫대는술한 세월을 넘나들면서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끝없이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는 숫대. 문명사회에 숨이 가빠 몰아쉬지만 다시 한번 꿈은 이루어 진다고 나의 집으로 새 한 마리 날아든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실개천 (8호P, 캔버스위 오일, 2008)



조 정 남

- 초대전 그룹전 다수
- 강원도 미술대전 특선
- 여성미술대전 특선
- 평화미술대전 특선
- 송파미술대전 특선
- 일원회 정기전
- 미술협회전
- 설악 천간회전

속초시 노학동 310-1

☎ 011-9728-0878

“아주 작은 동구 밖 개천 따라 피어난 코스모스가 하도 아름다워 가던길 멈추었네라. 꽃의 일렁임 따라 작가의 마음 또한 일렁 일렁 하였네라”

보이는 대로의 실삭 아닌 풍광에 동화되어 그 느낌을 회화적으로 단숨에 그리었네라.



강 영 진

•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섭외간사



영랑호의 석양

아름다운 추억...

시간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삶에 풍경...

문명의 발달 속에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옛 모습...

사진을 처음 시작한지 20여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진에 대한 애착은 더해 가지만 깊이 빠져들수록 어렵다는 것을 요즘 들어 깨닫게 된다.

이른 새벽 문득 잠에서 깨어 창문부터 열어보는 습관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날씨를 핑계로 카메라를 잡지 않는 습관 또한 몸에 배어있고, 이런 저런 핑계로 카메라를 손에 잡는 횟수가 줄다보니 막상 회원전에 출품할 작품을 선정 하려 치면 그동안 촬영해온 필름을 밤새 뒤져 몇 작품을 골라보지만 썩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한번 후회 한다.

그러다가도 동아리 회원전이나 갤러리에 들려 작품을 감상하는 순간만큼은 행복하고 사진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솟구치는 이 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즉 나에게도 아직 사진에 대한 열정과 애착이 마음속에 존재함이 아닐까.

그렇다 아직 늦지 않았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항상 카메라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주변 변화를 기록하는 습관이야말로 사진하는 사람으로서 후회하지 않는 최선의 길이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나는 또다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일탈을 꿈꾸는 나에게 여행은 '의도적으로 길을 잃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반복적인 행위'라 생각한다. 누구나 일탈을 꿈꾸지만, 더욱 더 심하게 일탈을 꿈꾸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사진작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먼 곳으로의 여행이든, 가까운 곳으로의 짧은시간의 여행이든...

누구나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똑같이 24시간이다. 특히 사진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 중 한사람일 것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하루를 더 마디게 가는 것을 느껴를 것이다. 같은 하루를 보내지만, 좋은 사진을 얻으면 더 즐거운 하루가 되고, 날씨가 좋지 못하면 사진 또한 맘에 드는 사진을 얻기위해 잠깐의 빛을 찾아 헤멘다. 사진은 빛과 관련되어 있어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빛없이 사진을 생각할 수 없다. 내 자신에게서도 사진 없이는 내 생활을 생각할 수 없으며, 사진은 내 생활의 일부이다.

때로는 원하는 사진을 얻지 못해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맛보기도 한다. 그러나 사진을 포기할 수는 없다. 더 노력하고, 피사체를 찾는다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사진 스타일이 있다. 제

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피사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지역의 토박이는 아니다. 요즘처럼 고향에 대한 의미가 작아지는 시절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더욱 중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 자신도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그 어떠한 곳보다 소중하고,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저는 현역군인(헬기 조종사)으로써 고향을 떠나 인천에서 11년을 살고, 이곳 속초에서 생활한지 만 4년이 되어가고 있다. 93년 제가 인천에 살기 시작할 무렵부터 소래염전이 폐염전이 되어가는 과정부터 염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10년의 촬영으로 개인전을 가진 적이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촬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고, 지난 추억을 생각하게하고, 그 지역에 다시 찾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 지역에는 좋은 곳이 많다. 제가 중·고교시절에 속초하면 설악산을 생각했다. 요즘 속초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대포항'이라 한다.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사진작가들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때 우리지역 '대포항'을 테마로 한 주제전이 11월에 있

었다. 많은 분들이 관람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곳에 와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제전을 한 것은 처음 본 것 같다. 계획하고 준비한 동우대 영상학부 여러분의 수고에 지면을 통해 사진하는 한사람으로써 감사드린다. 앞으로 우리 지역 테마를 가지고 주제전을 가지는 사진그룹과

개인이 더욱 더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관람하여 예향 속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일탈을 꿈꾸는 우리(사진작가)는 더욱 더 우리지역을 작품으로 만들어 속초시민 아니 속초를 사랑하고 찾는 분을 만나보고 싶다.



김 창 환

-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감사
- 한국사진작가협회 보도기자분과위원회 운영위원

- 월간 '영상' 추천작가
- 개인전 '소래 폐염전 그 이후...' (1993년, 인천 문화예술회관)
- 초대전 '양주 성우 헤스티아 모델하우스' (2003. 2.2 - 2. 28)
- 그룹전 및 단체전 50여회 참여
- 제2회 하늘내린 학생사진공모전 심사위원장 역임
- PACC-3/PAMS-27 사진팀장 (2003년 육군본부, 서울)
- DEFENCE ASIA 2004 사진팀장 (2004년, 육군본부, 대전)
- DEFENCE ASIA 2006 사진팀장 (2006년, 육군본부, 대전)

사진집 발간

- 번영하는 새천년(2001. 1.3)부평구청 / 공저
- 인천환경 2001 '우리가 본 환경' (2001. 10.6) 도서출판 '성광' /공저
- 생명의 숲 '인천 대공원' (2002. 10.19) 도서출판 푸른세상/공저
- 소래 폐염전 그 이후 ... (2002. 11.16) 광고회사 (주)이지컴

영구 전시 및 소장전

- 계룡 스파텔 '풍경사진' 3점 (대전)
- 부평 사진역사박물관 영구전시 및 소장전 2점(인천)
- 인천 북구 도서관 영구전시 및 소장전 6점 (인천)

반성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수업

김 옥 란 | 훈춘제1실험소학교 교사

훈춘과의 교류를 시작한지 어언 10여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훈춘시 인민정부나 문련 관계자를 만나면 외국인이 아니라 친인척 형제자매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의 정과 동포애란 것이 이러하듯 물보다 진합니다.
여기 소개한 글은 지난 해 10월 설악문화제 때 중국 훈춘시 해당화 예술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바 있는 훈춘시제1실험소학교 김옥란 선생님의 기고문으로 조선족 학교에서 일어난 일상을 소개한 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글과 조금 표현이 달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으실줄 알지만 원본을 그대로 담기로 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조선족 자긍심과 문화를 끝까지 지키려고 처절하게 분투하시는 연변조선족 소학교 선생님들께 고개를 숙입니다. <편집자주>

《따르릉》《따르릉》 사무실의 전화벨이 울렸다.
교장실로 왔다가라는 교장선생님의 호출이었다.
《힘들겠지만 6학년 2반의 조선어문수업을 맡아야겠어요.》

《네?...네.》
많은 교원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야! 속으로는 못내 언짢았지만 거역할수 없는 교장의 명이였다.
교원부족으로 이렇게 내가 6학년 2반의 어문수업을 맡게 된것은 새학기 맞기로 유난히 분주했던 9월의 어느날 오후였다.

교도처일을 하게 되면서 수업을 놓은지가 오래된 탓일까? 막막한 기분과 하기 싫은 게으름이 엉켜서 몰려왔다.

하루 일상은 전보다 훨씬 다망해졌다. 선생님들의 수업을 매일 진맥하고 다듬어줘야 하는 일, 각종 경연성 수업활동에 대한 인도, 학교사이버교연실의 운영, 거기에 덧붙여진 학생들의 숙제책 그리고 일기책 검사...

당금 졸업인 학년인지라 매 수업시간 40분중 한순간

도 소홀할수가 없었기에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기찬 수업마당, 효율적인 수업효과를 위해 나름대로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랑과 진심이라기보다는 책임이니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기에 수업이 항상 부담으로 느껴지며 하루라도 빨리 나를 대신할수 있는 교원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이렇게 어느덧 두달이 훌쩍 지났다.

들길의 코스모스가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질 무렵인 10월말, 이웃학교에서 김선생이 전근해옴으로 인해 그동안 맡았던 어문수업이 자연스레 김선생에게로 넘겨졌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무거운 짐을 부려놓은듯 마음이 가벼워졌고 기분 또한 한층 여유로와진것 같았다.

아무런 생각없이 새로 온 김선생을 교실로 안내했고 같이 공부하게 될 선생님이라고 아이들에게 소개했다.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예상못했던 눈앞의 광경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왔다.

개구쟁이 우양이의 눈에 가득 고인 눈물, 항상 얇전



위 중국훈춘 시가지 전경

아래 훈춘제1실험소학교 방문

하기만 하던 홍연이의 눈에서 툭 떨어지는 눈물 방울, 《잉~우릴 졸업할 때까지 갈킨다해놓군...》 투정하면서 원망스레 흘려보며 책상에 었디는 수룡이...? 코마루가 쩡해오며 약해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간단히 소개를 마친 후 나는 조용히 교실문을 닫고 나왔다.

사무실에 돌아와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웬지 일손에 잡히지 않았다. 항상 이 《짐》을 빨리 부러놓았으면 하고 기대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매듭지으려니 이름모를 허전함이 가슴을 허비며 나를 괴롭혔다. 짧은 2개월의 수업인연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조금이나마 시간적 여유로움을 되찾는가 싶었더니 그것도 잠시였다.

뜻밖의 사정으로 급변이 생겨 이틀후에 나는 내여놓았던 학급의 수업임무를 다시 맡아야 했다.

이틀전 아이들과의 작별이 못내 쭉스러워 나는 어색한 웃음으로 나왔던 그 교실문을 살며시 열었다.

《 짹짹그르~ 》 교실을 메우는 박수소리.

일제히 일어난 애들의 환한 얼굴들이 나를 맞아주었다.

교탁우엔 《사랑합니다. 선생님》이란 글이 씌여진 하트모양의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커다란 감동, 순간 눈앞에 뽀얀 안개가 피어올랐다.

다음날 아이들의 일기책을 하나하나 검사해나가던 나는 끝내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수업시간 내내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시간집중이 안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우리 반으로 돌아오신다는 말을 담임선생님한테서 듣고 너무 좋아서 책상에 올라 〈야호!〉 하고 웨쳤습니다》, 《나쁜 선생님, 미워요. 말한대로 안하는 선생님, 우릴 졸업할 때까지 가르친다고 해놓구는... 다시 돌아오셨기에 용서합니다.》

줄 끊어진 눈물이 랑볼로 미끄러진다.

《나쁜 선생》, 하나하나의 일기책을 덮을 때마다 고스란히 다가오는 감동과 아픈 반성,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나의 얼굴을 확확 달군다.

내가 준 건 짧은 지식이었음에도 아이들은 내게 뜨거운 감동의 선물과 교원의 량심을 살려주었다.

내가 뭘 잘해준 게 있다고, 항상 부담으로만 간주했던 너희들이었는데... 그 부담에서 해방된다고 내심 얼마나 기뻐했었는데...

나는 지난 두달과는 다른 새로운 수업을 준비하게 된다. 진지한 사랑으로 펼쳐가는 따뜻한 수업을.

창가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유난히 랑랑하게 들려온다.

속초예술

제14회 설악주부백일장

제19회 설악청소년백일장

우수작품

우리 집

장원

양양초등학교 2년 심성준

초인종을 누르면
한참 뒤에
나오시는 할머니

늦게 들어오시는 아빠도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엄마도

울면서 문을 발로
차는 내 동생도

큰 소리로 인사해야
잘 왔다며 엉덩이를
두드려 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머니는 우리 집의 대장

꿈

장원

양양초등학교 6년 박영주

한번 웃어보렴.
너나 할 것 없이
전염된단다.

도전해보렴
너의 그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니?
긍정의 힘을.

긍정은 소리 없이
번져가는 물파장처럼
많은 이들의 감정을
간질여 준단다.

나도 너희들의
감정을 간질여주는
사람이 되고싶단다.

고향

장원

설악중학교 2년 박준형

머나먼 고향
무궁화가 곱게 피어난 담장너머에는
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두 형제의 총칼을 드미는 싸움에
그들은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빗발치는 총알 틈에서 살아남은
한 젊은 청년은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50년 후, 한 젊은 청년은
주름살이 늘고 어느새 머리는 하얗졌습니다.
갈 수 없는 북쪽을 그리워하며
오늘도 할아버지는
머나먼 고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다시 가보셨을까.
50년 전 그 집, 무궁화가 꽃피어났던 그 집
할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마음

장원

속초고등학교 2년 신윤철

태안 앞바다에
드리우던 검은 그림자는
우리의 하나 된 마음으로 지워가고 있고

2002년 월드컵의 기적은
우리의 단결된 마음으로 이루어 냈다.

찬바람 속의
하나 된 마음은

이렇듯,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그 꽃의 꽃내음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한다.

꽃이 지고
다시 찬바람이 찾아와서
설사 이 꽃내음을 잊는다 해도

그 속에 담아두었던
우리의 하나 된 마음만큼은 잊지 말았으면...

우리 집

장원

소아초등학교 3년 김민진

우리 집은 엄마, 아빠, 오빠, 나 이렇게 네 식구로 살고 있다. 아빠는 술과 담배를 좋아하셔서 내가 “아빠 술과 담배 좀 끊으시면 안되요?”라고 말하면 “알았어 민진이 끊으라면 끊을게”라고 대충 말씀하신다. 그리고는 밖으로 또 피우시러 나가신다. 그러면 나는 한숨이 나온다. “어떻게 나하고 약속을 해놓고, 왜 지키지 않는 걸까? 내가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나?”

다음은 우리 엄마. 엄마는 나의 모든 것이 다 이쁜가 보다. 나를 보면 “이렇게 이쁜 새끼 어디서 나왔노?” 그러면 나는 속으로 ‘어디서 나오기는 당연히 엄마 뱃속에서 나왔겠지’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장난으로 말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오빠는 속초중학교 축구부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무뚝뚝해서 집에 오면 말을 잘 하지 않는다. 많이 해봐야 내 이름 한번 불러줄 뿐이다. 전래동화를 읽으면 다정한 오누이가 많은데... 우리남매는 왜 이럴까? 운동선수라고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나? 나는 멋있는 오빠 보다 다정한 오빠가 좋은데... 오빠한테 내 마음을 전할 편지라도 한 장 쓸까?

다음은 나. 엄마 아빠한테는 인기 만점이지만 학교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 왜지? 얼굴은 좀 괜찮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예쁘고, 내가 보기엔 난 다 괜찮는데... 친구들이 눈이 나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내성적인가?

또 나는 종이접기를 잘해서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잘 접어주는데...

어떤 날은 조금 시끄럽고, 또 어떤 날은 조용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집 네 식구 소개입니다.

별

장원

교동초등학교 6년 길다솜

아이들에게 착잡한 마음을 정돈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것을 모를 것이다. 어른들은 하루가 20시간이고 아이들은 24시간이 아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이들도 충분히 복잡하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간다.

나는 가끔 마음속이 혼잡할 때 하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온통 새까만 세상에, 네모난 건물. 건물만 척척 놓아져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계산적인 도시생활이 걸릴 때가 간혹 있다. 그 때 하늘을 바라보면 노랗고 조그마한 별이 나를 바라보고 웃는다. 내 감성적인 성격은 온통 새까만 세상 구석에서 노란 빛의 작은 별이 빛난다는 것에도 희망을 가진다. 시골에서 수많은 별을 헤아려 보는 것 하고 도시에서 별과 숨바꼭질하고 아주 꼭꼭 숨은 별을 한 개 찾아내었을 때는 상반된 느낌이 든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별에서 외계인이 넓은 지구 중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

땅 깊은 곳에서 열을 받고 있다가 화산 폭발로 인해 급격히 식은 현무암처럼 미움과 증오의 복잡함으로 끓고 있던 내 마음이 급격히 식음으로써 비어있는 내 뇌 속을 채우려는 엉뚱한 생각이다.

이 먼지 많고 까만 지구라는 별도 끝없는 우주 속에선 노랗고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을까? 아냐. 지구도 별이니까 분명 빛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별에 희망을 거는 이유가 언제나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가 오는 날엔, 구름 끼는 날엔 작은 빛으로라도 빛난다. 이렇듯 내가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내 희망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내 마음속의 맑은 날은 내가 만드는 거지. 그럼 내 별 같은 희망은 점점 더 아주 맑고 선명하게 빛날 거야.

고향

산문부문 장원

속초여자중학교 1년 소은혜

나는 아직 얼마 자라지 않았고, 또 고향에서 살고 있기에 ‘고향’이라는 단어를 듣고 깊이 깊은 특별한 감정 같은 것을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고향이 각기 다르더라도 모두가 ‘고향’ 하고 말할 때 포근한, 나의 안식처인, 돌아가고픈 이라는 따뜻한 단어들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우리 아빠의 친구는 지금 고향에 내려가 자신의 아빠와 함께 살고 있다. 나는 아빠친구를 두꺼비 삼촌이라고 부른다. 왜냐면 삼촌 친구들이 삼촌이 두꺼비같이 생겼다고 붙여준 별명이기 때문이다. 삼촌은 어렸을 적 늦둥이에 외동이었기에 매우 귀하게 자랐다고 한다. 그러나 삼촌이 중학생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고 엄마가 떠나자 줄곧 오랜 시간동안 아빠와만 살게 되었다. 삼촌의 아빠는 나름 최선을 다해주었지만 삼촌은 아빠의 사랑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공부는 잘 못해도 원래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이었기에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삼촌을 좋아했었다. 그러나 그 후로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자주 수업에 늦게 들어오고 툭하면 싸움을 하거나 매일 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등 비행을 일삼자 주위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다 경기도에 있는 한 회사에 겨우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리었고 다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 두꺼비 삼촌의 아빠가 연세가 많아지셨고 병을 얻으셔서 고향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한다. 학창시절 아빠께 지은 죄가 너무 많은 불효의 죄를 씻으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빠와 함께 고향에 내려갔다고 한다. 지금은 아빠를 위한 텃밭농사를 지으며 잘 살고 있다고 한다. 과거가 어두웠고, 많은 나쁜 기억을 품고 있지만 고향에 내려가서 그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고향은 그들에게 있어 아빠의 사랑과 삼촌의 믿음이 있었기에, 포근한 것이며, 고향은 우리 모두에게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해 주는 마법이 있는 게 아닐까?

오월

주부백일장 시부문 차상
고동초등학교 6년 김다현의 모 박혜원

오월이면,
봄의 여신 꽃들의 향연이 물밀 듯이 밀려온다.
농사일도 몸에 부치시면서 꽃밭 일을 하시는 아버지
쉬엄쉬엄 하세요! 목구멍까지 솟지만 입안에서만 맴돈다.
가족을 동반한 관광객들은 관광지 속초를 찾아오지만,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는 끝이 없다.

묘장에선 포토에 국화이식을 하고 로타리를 치고
길가 화단엔 풀을 매고, 꽃을 심는다.
길가엔 팬지, 한나, 패츄니아... 오월의 선물들이
각자의 색으로 꽃망울을 터트린다.
가을은 오월의 수고스러움에 대한 또 하나의 선물이겠지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
바람, 비, 해의 노고가 있었음을 잊지 않는다.
지나가는 꽃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스쳐가는 오월에 눈인사를 건넨다.
아버지가 계셔서 오월은 눈부십니다.

오월

주부백일장 시부문 차상

청대초등학교 1년 최영수의 모 양양덕

오월, 산에는 촛불잔치가 열린다.
어린 소나무에서 노송들까지
가슴가득 촛불을 밝혀들고
하늘을 향해 찬양 드린다.

지난 겨울
긴 꼬리를 흔들며 으르렁대는 바람에
팔다리가 부러졌지만 이젠 다 나았다고
키가 한 뼘이나 자라고 손주가 두 명이나 더 생겼다고
땅속 마당이 세평쯤 넓어졌다고
저마다 자랑하고 축하하며
왁자지껄 감사해한다.

이제 밤에는
긴너 마을 늙은 쥐 삼형제
축하하며 왔었나보다.
촛불을 켜둔 채 날 샌 줄 모르고
잠들어 있는 등 굽은 가지아래
까만 솔방울들이 뒹굴고 있다.

외출

주부백일장 산문 부문 장원
양양초등학교 1년 김성준의 모 김승희

파란 하늘에 손을 뻗어 흰 구름 한 움큼 잡아 입에 넣고 싶은 계절이다. 어느새 파란 잎들은 서로 자랑이라도 하듯 손바닥만큼씩 자라 쉬고 싶은 이에게는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다. 난 혼자서 외로이 하루 하루를 보내며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가끔 방문드려서 ‘햇살이 따뜻해요 하며 커튼을 열고 햇빛 좀 보세요’ 하면,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르신들께서는 제대로 빛을 바라보질 못 하신다.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 빛이 싫어지신 것이다. 순간 눈물이 핑 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난 오늘 또 한번 평범한 내 일상에 감사해 했다. 온몸에는 땀투성이고, 이불위에는 소변들로 범벅이 되어 발을 디딜 수도 없는 곳에서 옮겨 가지도 못하고 그 어르신에게서는 긴 밤을 또 보내셨을 것이다. 형클어진 머리를 감겨드리고 따뜻한 물로 온몸을 닦아 드리고 상처가 난 곳엔 약도 발라드리고 새 이불로 자리를 봐드리면 어르신께서 물끄러미 날 쳐다보시면서 웃으신다. 고맙다고... ‘왜 이렇게 죽지도 않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늘만이 아는 일을 어르신께서나 저나 어찌겠어요’ 하니, 이번엔 우신다... 사는 날까지 그래도 우리 힘들어도 웃어보자고 했다.

얼마 후 다시 찾아 뵈 어르신께서는 저번보다 더 많이 야위셨다. 숨소리가 거칠고 호흡이 가쁜게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았다. 어르신께서는 날 불러 놓더니,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하신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 할 긴 외출이 될거라면서 그동안 고맙웠다고 우신다. 같이 눈물이 범벅되어 울다가 어르신께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했다. 가는 길에는 꽃도 가득 피어있고, 그 동안 못 드셨던 과일들도 주렁주렁 열려 있을거라고 실컷 드시라고 했다. 내 생각이 나거든 구름 속에 찾아와 하나만 주고 가시라고 했다. 어르신 생애에서 가장 긴 외출이지만 결코 슬프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요즘에도 가끔은 그 어르신 살던 집을 지나갈 때면 아직 귀가하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행복한 여행을 하고 계실거라 믿는다. 난 오늘도 또 다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긴 외출준비를 도와드리러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외출

주부백일장 산문 부문 차상

중앙초등학교 3년 김수빈의 모 임금선

“선생님, 저....”

“왜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바쁘지 않으시면 이것 좀 봐주고 가세요”

수줍은 듯 내민 종이엔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하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학습지 지도교사인 나는 어느 날 불현듯 내민 회원 어머니의 글을 보게 되었다. 어머니 말씀인 즉, 요즘 여성교양강좌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글을 한 편 내라는 숙제가 있어서 했다는 것이다.

나는 회원 어머니가 쓰신 글을 주욱 읽었다. 군데군데 어법이 안 맞고 어색한 문장도 있었지만,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간절 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살며시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다. 3년 전 내가 거울 앞에서 울었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그 때 나는 정말 많이 울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동안 내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 또한 많이 피폐해 있었다. 하루 하루가 의미 없게 지나가고, 우울과 짜증이 늘어만 갔다. 특히, 내가 속상했던 것은 결혼 전에 가졌던 많은 꿈들이 결혼과 함께 사라지고, 아이들을 핑계로 내 삶이 없어져 간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용기를 내어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몸매는 엉망이 되어있었고, 박봉인 남편 월급으로 짜디짜게 살림을 하다보니, 변변히 입고 나갈 옷도 없었다. 옷장을 죄다 뒤집어 놓고 헤쳐 보다가 끝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다. 그냥 마구 서럽다는 생각만 들었다. 만약 친구의 자상한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그때 그렇게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제 나는 이 어머니께 그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와 같이 거울 앞에서 울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빨간 립스틱 질게 바르고’ 당당하게 문을 나서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말이다.

“어머니 너무너무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수업을 대 빨간 립스틱 사드릴게요!”
또 한 사람의 외출에 가슴이 설렌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용기 있는 외출이다. 그 곁에서 팔짱을 끼어 줄 나도 용기 있는 사람이다.

외출

주부백일장 산문 부문 차상
영랑초등학교 3년 이호택의 모 강복자

밤 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아침에도 뿌연 안개가 아침을 열었다. 그 날 그렇게 갔더라면...

투명의 액체가 아직도 혈관을 타고 흐른다. 창 밖에 뿌연 안개가 아침을 연다. ‘일어나자! 그이가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기 전에 세수라도 하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부운 얼굴을 보면 가슴 아파 할 텐데...

또 오늘 하루 싸워보자. 그 높은 참 질기다. 독한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엉덩이가 딱딱해 질대로 딱딱해져서 더 이상 주사바늘 들어갈 구멍도 없는데도 끝내 후퇴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끝까지 해 보는거야!” 내가 져버리면 나야 그만이지만, 나 하나 살려보겠다고 좋다는 약 다 구해먹이고, 병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구해서 밤 새워 만들어 오는 언니와 동생, 그리고 내가 자기의 인생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남편을 위해 일어나 보는거야!

그런데 왜 이리 하늘이 노랗게 보일까? 땅바닥이 벌떡 일어나 내 얼굴에 찰싹 붙어 버렸다. 병실의 창백한 벽이 내게 달려왔다.

그리고 난 높고 고불고불한 등산을 걷고 또 걸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커다란 성이 보이고 끝에서 끝이 안 보이는 철창 문 앞에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키가 큰 시커먼 남자는 들어올 수 없다고 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가던 길을 되돌아 왔다. 어디선가 저 멀리서 이름을 부르며 대성통곡하는 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언니 왜 그러냐?”고 묻고 싶어서 입을 열었지만, 입이 마르고 혀가 굳어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겠기에 온 힘을 다해 “어언~니, 왜 왜 그~래”라고 간신히 입을 떼어 보았다. 그 소리에 놀란 식구들은 더욱 큰 소리로 구슬피 울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침대 옆에는 온 가족이 눈이 통통 부운 채로 눈물에 콧물이 범벅이 되어 놀라움과 안도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앞 다투어 나를 알아보겠냐고 하는 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내가 방금 다녀온 그 곳은 어디였지? 정말 그 철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왜 문을 안 열어 주었을까? 그 곳에서는 통증도 못 느끼고 마음이 참 편안했는데...

체중 35kg도 채 안되던 내가 그 날 이후 몸이 회복되고 허깨비 같던 몸도 서서히 제 모습을 찾게 되었다. 제법 볼에도 살이 붙어 말그레하게 혈색이 돌아왔다. 허파를 다 갇아 먹어버린 그 지독한 놈을 물리쳤다. 이제 나는 일어 설 수 있다. 아니 예쁘게 치장하고 외출을 할 수 있다.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은 그이와 처음 만났던 바닷가를 가 보고 싶다. 그리고 솔밭도 거닐어 보고 공원도 가 보고 싶다. 외출 준비에 마음이 설렌다.

2008년 속초예총 이모저모



2008. 1. 갈매동인 회장 김춘만, 부회장 권정남 선출

2008. 1. 권정남 회원 강원여류 산까지 회장으로 피선

2008. 3. 갈매문학기행 만해마을 「도종환 시인」 강연회

2008. 5. 4 제25회강원연극제

단체대상(굴렁쇠), 연출상(김귀선), 우수연기상(석경환, 추예인)
단체은상(청봉), 무대미술상(정봉재)

2008. 8. 김진우 강릉MBC 주최 영동4개시군 주민가요제 대상수상

2008. 8. 6-12 박동국 대한민국수채화 아트페어전 (인사아트센터)

2008. 9. 신입회원 고선희 입회(2006 현대시선으로 등단)

2008. 9. 27 주은정 제16회 강원도주부가요제 대상수상

2008. 9. 권정남 제3시집 「물푸레나무 사랑법」 출판

2008. 10. 권정남 제27회 강원문학상 수상

2008. 10. 3-26 정광섭 제7회 초대개인전(경기동 광명시 스피돔갤러리)

2008. 11. 채재순 제2시집 「나비, 봄들녘을 날아가다」 출판

2008. 11. 12 한기학 제1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수상

2008. 11. 15-19 고주리 개인전(속초시 문화회관 신전시실)

2008. 12. 11. 신오일 제22회 예총예술상 수상

2008. 12. 19. 윤홍렬 제2회 강원예술상 수상

2008. 12. 23. 제9회 속초관광사진공모전 수상

동상-박세인, 가작-최희재, 최정수

입선-임홍빈, 김정희, 김형관, 최정수, 홍창해, 이왕선, 박세인,
최희재, 선종용, 신태진

2008년 예총속초지부 돌아보기

박 종 성 | 속초예총 사무국장

♣ 2008 속초불축제 체험행사 개최



속초시가 주최한 2008 속초불축제가 1월 24일~27일까지 청초호반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예총에서는 아래와 같이 참여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 달고나 체험행사 : 2008 속초불축제를 기념하여 엑스포 주차장내 놀이체험존에서 무료체험을 운영함으로써 축전참가

자들에게 축제의 즐거움과 옛 향수를 만끽케 하였으며,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불축제가 보다 재미있는 축제로 거듭나는데 일조하였으며 불축제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 논외호 불꽃놀이 재현 : 극단 굴렁쇠가 축제기간 중 매일 2회씩 임시공연장에서 수렁행차를 연극공연으로 재현하였다.
- 불꽃모자만들기 :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꽃모자 만들기 체험을 전개, 특히 야광불꽃모자 체험은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 2008 설맞이 청초웰빙콘서트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매일 오후2시부터 무자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설악에서 연휴를 보내고자 우리지역을 찾은 관광객과 고향을 찾은 출향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 와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사업으로 청초호 유원지 분수대광장에서 예총주관으로 2008 설맞이 청초웰빙콘서트를 개최하였

다. 공연 프로그램은 2월 8일(금요일) 청소년 댄스팀(인피니티 소울), 그룹 어필 7080노래(김원기, 신주하), 설악주부타악그룹(해울림 대북공연)과 2월 9일(토요일) 뽀리댄스(뽀리댄스 및 에어로빅), 청소년댄스팀(언더플라워), 결혼이민자 초대가수 필리핀(버지니아), 향토가수(추예인) 그리고 2월 10일(일요일) 청소년댄스팀(비보이), 뽀리랑댄스(뽀리댄스 및 에어로빅), 그룹 엠씨수 등이 출연하였으며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 속초예총 제19차 정기총회



2월 28일(목) 오후5시에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속초예총 제19차 정기총회가 있었다.

재적 대위원 40명중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된 2007년도 결산(안)이 의결되었고, 200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심의 및 기타 안건이 논의되었다.

♣ 전설의 달밤 '화진이 화진이' 공연(굴렁쇠)



극단 굴렁쇠에서는 공연작 '전설의 달밤'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순회 공연을 가졌다.

▷2/14일 양양문화복지회관 오후5시, ▷2/16일 인제문화관 오후2시, ▷2/24일 고성명태축제 오후2시, ▷2/26일 속초문화회관 오후4시, 7시 -작가 홍원기, 연출 김귀선, 출연 추예인(화

진), 석경환(규명), 황헌중(명각), 박문수(각수), 남호섭(수호), 최소영(고칭), 스텝 장태준(음향), 문대성(무대), 강상민(조명), 황은지(의상), 최소영(분장), 김민혁(조연출), 이수미(조연출보), 권다림(조연출보), 정경숙(기획), 김영식(기획보)이 공연에 참가하였으며 작품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화진포 호숫가에 자리잡은 카페 <고인물>는 전망이 좋다.

매일 밤 모여드는 사내들이 있다. 그들은 매력적인 정체불명의 여주인 '화진'에게 푹 빠져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화진포 풍광을 찍는 아마추어 사진작가 '수호'. 어느날 밤 수호의 제안으로 사내들은 화진포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한다. 전설속의 주인공 '이화진'과 카페여주인 '이화진'이 이름이 같은 것에 묘한 호기심을 발동하면서, 전설 속 상황을 재현하기도 하면서 어울려 즐긴다.

카페에서 만난 네 사내들. 그들의 내기와 전설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화진과 그녀를 둘러싼 네 사내 '규명', '명각', '각수', '수호'의 비밀과 그들 사이에 얽힌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 굴렁쇠 민방위공연



극단 굴렁쇠 민방위 공연이 3월부터 10월까지 속초시, 서울시, 소방방재청, 서울시 양천구, 중랑구, 성북구, 강서구, 강동구, 관악구 등에서 총60여회 공연을 가졌다. 민방위 교육을 주제로 재난재해 대처요령, 화생방, 산불방지, 지하철 테러등을 다루었으며, 특히 서울시 양천구의 경우 민방위 교육연극이 민방위 대원들에게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년 40회의 공연계약을 맺고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또한 양천구는 민방위 연극교육이 민방위 교육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극단 굴렁쇠는 내년에도 서울시 양천구를 비롯한 강서구, 속초시 등 년 단위 공연계약을 맺고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 제47차 한국예총 정기총회 참가

2008년 2월 29일 오후 2시에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

의장에서 한국예총 제47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2007년 예결산(안) 및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결의 되었으며 제25대 한국예총 회장 선거가 있었다. 속초예총 한기학 회장이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 실향민 문화촌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속초시립 박물관 문화마당에서 극단 굴렁쇠가 “한씨연대기”를 실향민 문화촌 콘텐츠 사업으로 연극공연을 예총 주관으로 무대에 올렸다.

원작 황석영, 연출 김귀선, 출연 김귀선, 황현중, 석경환, 남호섭, 최소영, 추교미, 한기학, 스탭 박종성, 김영식, 박문수 등이 참석하였다.

악극공연을 통한 실향민 민속촌의 활성화 및 관광홍보 극대화로 속초시 알리기를 꾀하였으며, 금회 공연작은 한국전쟁 이후의 실향의 아픔을 다룬 작품으로 실향민 문화촌의 건립취지와 의미를 함께 하는 바, 극장용 무대를 야외무대로 전환하여 관람객들에게 자유로운 관람을 이끌었으며 특히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에게 분단의 아픈 역사를 일깨우쳐 주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 제25회 강원연극제



강원연극인들의 최대의 축제인 제25회 강원연극제가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4월 24일 춘천(굴레) 봄봄, 4월 25일 강릉(꿈하늘) 도망치는 사람, 4월 26일 원주(산야) 토기와 포수, 4월 27일 원주(연극사회) 금따는 공발, 4월 28일 원주(치악무대) 돼지와 오토바이, 4월 29일 춘천(춘천여성문화예술단)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 4월 30일 속초(청봉) 꽃밥, 5월1일 속초(굴렁쇠) 전설의 달밤 “화진이 화진이”, 5월 2일 원주(우리네 땅) 영월행 일기, 5월 3일 태백(동그라미) 오월엔 결혼할 거야, 5월4일 삼척(신예) 꽃잎 등 도내 11개 극단이 참가하였다.

대상은 굴렁쇠(속초) 전설의 달밤 “화진이 화진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강원도지사상장 및 부상으로 500만원을 수여 받았다. 연출상 김귀선(전설의 달밤 “화진이 화진이”), 최우수연기상 윤선화(동그라미), 우수연기상 석경환(굴렁쇠), 추예인(굴렁쇠), 서현주(산야), 유승균(연극사회), 금상 연극사회(춘천) “금따는 공발”, 동그라미(태백) “오월엔 결혼할거야”, 은상 청봉(속초) “꽃밥”, 동상 신예(삼척) “꽃잎”, 무대미술상 정봉재(청봉), 회고상 변유정(금따는 공발) 등이 단체상 및 개인상을 수상하였다.

대회심사는 장규호 도연극협회 부회장, 김학철 연극협회 원주지부장, 김경태 극단 Art-3대표, 조영석 연극협회 강릉지부 이사, 오명환 영북지역 교사연극연구회장, 노종팔 속초연극협회 부회장 등 6명이 맡았다.

극단 굴렁쇠는 5월 23일부터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26회 전국연극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는 출전권을 부여받았다.

♣ 제4회 화랑영랑축전 문예행사

속초시가 주최하는 제4회 화랑영랑축전이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속초시 영랑호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속초예총에서는 추억의 먹거리(추억의 빵튀기, 추억의 달고나, 추억의 주먹밥) 시식코너와 무료체험 장터를 운영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모금활동을 통해 연탄은행에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 주민·관광객이 어울리는 무용공연

제4회 화랑영랑 축제기간에 예총과 무용협회 주관으로 “주민, 관광객이 어울리는 무용공연”을 개최하였다. 무용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화랑의 후예 - 전통검무를 모티브로 신라화랑의 기상을 무용으로 안무 창작한 작품.(검무는 신라시대 화랑 중에 「황창랑」이라는 화랑이 신라를 위해 백제왕 앞에서 칼춤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백제왕을 죽이고 자신을 희생한데서 유래 되었다고 전해지고 또한 화랑은 여성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원화」라고 한다.)

화관무 - 태평성대를 기리는 춤으로 예식성이 강하고 규율이 내재된 궁중의 복식으로 장식적 전통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춤사위는 한삼으로 그려내는 유동의 멋과미를 표출한다. (오색구슬로 장식한 화려한 화관을 쓰고 추기 때문에 화관무라고 한다)

장고춤 - 장고는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 악기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악기로서 궁편과 채편의 음률이 마치 음과 양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며 음의 조화를 이루어 춤과 함께 하며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흥겹고 태평스러운 여인의 흥취가 돋보인다.

출연은 안무·연출 양숙희, 음악 권오돈, 출연 변효경, 권현주, 강은미, 이은혜, 조성희, 정승진 등이 참가하였다.

♣ 속초예총 2008-1차 간사회의

2008-1차 간사회의가 4월 29일 오후 5시 30분에 예총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토의안건은 제19차 속초종합예술제 지금배정 건 및 개막식 참석인원배정, 제43회 설악문화제 관련 안건 등이 논의되었다.

♣ 제10회 Korea. National H.O.G Rally 기념콘서트



5월 2일부터 5월 3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한화리조트 야외무대에서 2008 제10회 Korea. National

H.O.G Rally 기념 콘서트를 예총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사회 김귀선(극단 굴렁쇠대표), 향토가수(김진우), 댄스(카스파), 언더그라운드 힙합(엠씨수), 노래하는 사랑들, 통기타 라이브가수(가일-마셜)등의 출연과 외국인을 위한 전통 문예공연으로 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양숙희무용단)의 공연도 개최하였다.

전국의 H.O.G Rally 동호인들에게 속초예술인들의 우수한 역량을 선보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제9회 훈춘가요제 예심



5월 11일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제9회 훈춘가요제 예심을 예총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한기학 속초예총회장과 강종철 연예예술인협회 지부장이 훈춘을 방문하여 모두 20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였다.

♣ 속초예총 2008-2차 간사회의



5월 21일 오후 5시 30분에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속초예총 2008-2차 간사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안건으로는 제9회 훈춘시 국제가요제 추진건, 제19회 속초종합예술제 추진건 등이 논의되었다.

♣ 제19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

제19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 행사가 5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 속초예총 주관으로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개막식 식전행사로는 모듬북 회오리(금호동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연주가 있었고, 이후 개막 테이프 커팅식이 있었다. 한국 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전이 개막행사로 열린 가운데 사진전 관람 후 대극장로비로 자리를 옮겨 각급인사 및 사회단체, 기관단체장 100여명의 축하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메인행사가 진행되었다. 문인협회 박대성 시인의 시낭송과 음악협회에서 준비한 클래식 및 실내악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이날 한기학 회장은 내빈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문예사업을 주관할 속초예총의 회원협회장들과 예총 명예회장 등 속초예총의 임원들을 내빈에게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다. 속초예총 8개 회원협회 - 문인협회(지부장·김춘만), 미술협회(지부장·신동진), 연극협회(지부장·신오일), 연예예술인협회(지부장·강종철), 음악협회(지부장·원영백), 국악협회(지부장·정연석), 사진작가협회(지부장·황병진), 무용협회(지부장·양숙희)에서 준비한 19여개의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1개월간 지역민을 찾아가는 종합예술제가 열렸다.

♣ 제3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전



5월 22일~5월 27일까지 문화회관 신전실에서 제3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정기회원전이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 사업으로 개최되었다.

총 전시작품은 60점이며, 출품자 20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성호, 최홍영, 홍성택, 정태환, 황병진, 최종익, 김형관, 홍창해, 김정희, 김창환, 김용환, 김창수, 이왕선, 신태진, 전택진, 홍종호, 고명자, 김장현, 최정수, 최희재, 강영진, 선종용, 박민호, 최종인, 유홍균, 최종화, 박세인, 김보영.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여 종합예술제에 초대된 인사들이 대거 관람하는 등 전시회가 성황리에 성료되었다.

♣ 제19회 설악 학생백일장



5월 24일 오후2시부터 엑스포 분수대광장에서 제19회 설악 학생백일장 대회가 개최되었다. 초등 저학년-친구, 우리집, 초등 고학년-꿈, 별, 중등부-고향, 노래, 고등부-길, 마음이란 시

제로 지역 청소년들이 문학 창작에 직접 참여하여 평소 연마한 문학소질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순수한 마음을 길러주고, 창의성 계발로 보다 밝은 꿈과 희망을 주고자 추진된 사업이었다.

총 수상자는 145명이며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장 및 도서상품권이 지급되었으며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등산문저학년 장원(속초문인협회 지부장상)김민진(소아초 3년), 차상 최정연(교동초 2년), 차하 안예지(청봉초 2년)외 장려1명, 초등동시 저학년 장원(속초문인협회 지부장상)에 심성준(양양초 2년), 차상(속초문인협회 지부장상) 조유찬(영랑초 2년)외 1명, 차하 오찬영(청봉초 3년)외 2명, 장려25명, 초등동시 고학년 장원(예총회장상) 박영주(양양초 6년), 차상(속초문인협회지부장상) 김지수(청대초 5년)외 1명, 차하 최윤정(교동초 6년)외 2명, 장려46명, 초등산문부 고학년 장원(예총회장상) 길다숨(교동초 6년), 차상(속초문인협회 지부장상) 노가영(소아초 5년)외 1명, 차하 배은미(설악초 6년)외 2명, 장려 18명 등이 수상했다.

중학교 시부문에는 장원(속초예총 회장상) 박준형(설악중 2년), 차상(속초문인협회 지부장상) 안소정(속여중 2년), 차하(속초문인협회 지부장상) 이은화(속여중 1년)외 1명, 장려 4명 산문부 장원(속초예총 회장상) 소은혜(속여중 1년), 차상(전소현(설여중 3년), 차하(속초문인협회 지부장상) 김석중(설악중 1년)외 1명, 장려 2명 등이 수상했다.

고등부 시부문에는 장원(속초예총 회장상) 신윤철(속초고 2년), 차상(속초문인협회 지부장상) 손병용(양양고 3년), 장려1명, 산문부에는 차상(속초문인협회 지부장상) 박진욱(속초고 1년) 등이다.

♣ 제19회 설악학생 미술실기대회, 제12회 설악학생회화대회



5월 24일(토) 오후2시 엑스포 분수대 광장 및 엑스포 주제관에서 제19회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 및 제12회 설악학생회화대회가 개최되었다. 지역 청소년들이 현장교육의 일환으로 미술문예 창작의 장에 직접 참여하여 평소 연마한 미술소질을



발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문예축제를 통한 전인교육에 이바지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유치부, 초등부 저·고학년, 중·고등부에 지역청소년이 참가하여 주변의 풍경, 경험한 것을 그리거나, 구성하였고, 서예 부문에는 초등1부 푸른하늘 소야들녘(靑天白日 所野川邊), 초등2부 푸른동해 설악준령(淸淨東海 雪嶽峻嶺), 중·고등부 성긴덧 정다웁고 고우신채 단정할사 천품이 높은 전차 웃음에도 절조로다(淸心可持同龜壽 養性常膺與鹿齡) 등의 주제가 주어졌다.

수상자로는 유치부 최우수에는 김경진(반야어린이집)외 4명, 우수 10명, 특선 20명, 장려 20명, 입선 7명, 초등1부(1~2년) 최우수 손정연(거진초2-1)외 9명, 우수 20명, 특선 25명, 장려 19명, 입선 13명, 초등2부(3~4년) 최우수 김남경(소아초4-1), 외 9명, 우수 12명, 특선 8명, 장려 10명, 입선 4명, 초등3부(5~6년) 최우수(속초예총 회장상) 김지나(영랑6-4)외 11명, 장려 7명, 입선 1명, 중등부 최우수(속초예총 회장상) 정나윤(속초여중 1년)외 4명, 우수 4명, 특선 5명, 장려 6명, 서예부문에 초등1부 특선 김은비(현서초 2년)외 1명, 초등2부 최우수 김지우(청대초 4년), 우수 2명, 특선 1명, 초등3부 최우수 장인경(현서초 5년), 우수 김성환(현서초 6년)외 1명, 특선 3명, 장려 3명, 중등부 최우수(속초예총 회장상) 박종희(속초여중 2년), 장려 1명이 수상했다.

♣ 제14회 설악 주부백일장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엑스포분수대 광장에서 영북지역(속초, 양양, 고성) 가정주부(자모) 및 일반여성들이 문학창작에 참여하여 소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문학에 대한 사랑과 문학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자, 제14회 설악주부백일장이 속초문인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 토요일로 사업일자 변경과 해경에서 추진한 “바다 그리기” 사업이 같이 추진되어 연계 참가자들이 많았다.

시제는 5월, 외출 등 시, 산문 동일하게 부여되었으며, 총 80여명이 참가하였다.

주부(시) 차상(속초문인협회 지부장상) 박혜원(교동초 6년 김다현모)씨, 주부(산문) 장원(속초예총회장상) 김승희(양양초 1년 김성준모)씨 등 31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 제19회 설악주부미술한마당 · 제12회 설악취화대회

지역 가정주부(자모)들이 미술 창작에 직접 참여하여 평소 잠재적인 예술적 창의능력과 소질을 발굴하여 향토미술인 저변확대와 미술의 생활화에 기여함은 물론 강원 제1의 주부현장 미술실기 대회로 육성하고자 마련한 제9회 설악주부미술한마당 및 제12회 설악주부취화대회가 속초미술협회 주관으로 5월 24일 오후2시에 엑스포 상징탑 광장 및 강원국제 관광엑스포 주재관에서 개최되었다.

수상자로는 서양화부문 대상(속초예총회장상) 고경애(주부), 최우수 최문자(양양도서관), 우수 김희율(주부), 임미영(양양도서관), 특선 함경숙(양양도서관), 김은주(주부), 장려 채미정, 김희남, 황은혜, 윤금재씨, 서예부문 대상(속초예총 회장상) 이주옥(한글), 우수 한초재(한문), 어미재(문인화), 김지숙(한글), 김재욱(한글), 특선 정계은, 조현조, 제혜례, 심혜영, 오순화(한글), 장려 박옥화, 노경신, 이명자, 김분남(한글) 등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제4회 가훈 · 고사성어 무료취화회



제4회 가훈 · 고사성어 무료취화회를 속초서우회 주관으로 5월 24일 오후 2시 엑스포 분수대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취화작가로는 속초시 서우회 회원 10명(무순) 박학성, 송석환, 허정도, 임만근, 전재남, 조성익, 조종기, 박찬호, 박종철, 최양규 등이 작가로 참가하였다.

본 사업은 속초서우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에 증정용 작품을 제작하여 당일 무료로 배부하였으며, 일부는 몽골형 텐트 내에서 샘플작품을 전시, 즉석에서 신청자가 작품을 선정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었다.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저변확대에 이바지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백일장 및 미술실기대회와 사업을 같이 추진하였기에 많은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 극단굴렁쇠(전설의 달밤 “화진이 화진이”) 공연



5월 23일 오후 7시30분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전설의 달밤 “화진이 화진이” 공연이 극단 굴렁쇠 주관으로 무대에 올랐다. 지난 4월 24일부터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5회 강원연극제에서 단체 대상수상작이며 연출상(김귀선), 남자연기상(석경환), 여자연기상(추예인)을 수상한 작품이다.

작가 홍인기씨의 신작으로 화진포 호수에 얽힌 설화를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장자못 전설>을 모티브 한 작품이다. 무릇 진부해 질 수 있는 설화를 오늘의 시각, 시점으로 재해석하여 그 재미를 더해 문학적, 문화적 묘미를 만날 수 있는 작품으로 박진감 넘치며 빠른 템포의 장면 전개, 개성 있는 연기자들의 웃음 코메디, 슬픔과 행복이 공존하는 가족드라마로 관객들에게 많은 갈채를 받았다.

연출 김귀선, 배우 추예인(화진), 석경환(규명), 황헌중(명각), 박문수(각수), 남호섭(수호), 최소영(고청), 장태준(음향), 문대성(무대), 강상민(조명), 황은지(의상), 최소영(분장), 김민혁(조연출), 이수미(조연출보), 권다림(조연출보), 정경숙(기획), 김영식(기획보) 등이 출연하였다. 관객객은 450여명이 입장하였다.

♣ 제26회 전국연극제 출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26

회 전국연극제에 강원도 대표로 선정되어 출전한 극단 굴렁쇠(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소속)의 전설의 달밤 “화진이 화진이” 공연이 5월 25일 인천종합문예회관에서 있었다. 초연작으로서의 기대와 극단 굴렁쇠에서 전국연극제를 거닐며 작품을 대대적으로 보완하는 등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대회 상위 입상을 노렸지만 아쉽게도 입상권에 들지는 못했다.

♣ 제1회 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 정기공연



5월 25일 오후 7시 30분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무용이 있는 밤 “나빌레라”라는 주제로 제1회 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 정기공연을 무용협회 주관으로 무대에 올렸다. 한국무용, 현대무용을 망라한 군무와 독무 레퍼토리의 다양한 춤 향연은 물론 푸너리 예술단의 반주와 연주가 어우러지는 모처럼 만의 무용의 진수를 만끽케 하는 공연이었다.

연출·지휘 양숙희, 무대감독 권오돈, 출연 조성희, 김애란, 강은미, 최혜선, 김경진, 변효경, 정승진, 권현주, 이은혜, 김문성(팝핀) 등이 출연하였다.

특별 찬조출연팀인 푸너리예술단은 동해안의 푸너리 장단을 기본으로 무속사물놀이를 대중화시키며 수차례 외국공연으로 우리 전통예술을 세계에 알려온 팀으로 단장 김명광, 감독 김명대, 단원 김운석, 신희라, 고은빛, 임선미 등이 활동 중 이다.

♣ 극단 청봉 정기공연



5월 30일 오후 7시 30분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극단 청봉의 “꽃밥” 공연이 있었다. 제25회 강원연극제에서 단체상은 상과 무대미술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동네로부터 한적한 곳에 살고 있는 노인과 노파가 십 수년간 노인을 방에 가두어 놓은 채 살아가며 노파는 노인에게 대한 병적인 애착과 애증을 표현한 작품이다. 창작초연된 정민아 작으로, 연출 김일태, 출연 최은희(늙은 난간), 김수정(젊은 난간), 김태영(풍일), 스텝 정봉재(무대미술), 노경민, 김형관(진행), 남상진(음악감독) 등이 공연에 참가하였다.

♣ 제19회 설악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연예예술인협회 주관으로 5월 31일 오후 2시에 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제19회 설악청소년 건전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예심이 개최되어 모두 21개팀을 선정하였다

본심은 6월 15일 오후 2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상팀은 대상(한국연예예술인협회 이사장) 주재우(속초고 2년), 금상(한국예총 속초지부장) 댄스팀 진공무량수(임종현 외 1인), 은상(한국예총 속초지부장) 클로버(최승환 외 3인), 동상(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부장) 댄스팀INPINITY SOUL(김상현 외 7인)외 장려 2팀, 인기상 1팀, 응원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상을 하였다. 지역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업을 전개, 종합예술제 기간사업 중 가장 인기있는 사업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속에 개최된 우정의 한마당 축제였다.

♣ 제33회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전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문화회관 신 전시실에서 제33회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회원전이 미협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속초미술협회 회원 32명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한국화부문 - 백종숙, 옥명준, 조정승, 문인화부문 - 김길자, 서양화부문 - 김영복, 김종학, 박동국, 박혜정, 박흥기, 서문일, 초, 선정희, 이동수, 이설윤, 전원재, 정광섭, 정봉재, 조정남, 최금란, 허인순, 조소부문 - 도창록, 박영근, 신동진, 장국보, 장승복 공예부문 - 고주리, 정경연, 진금희 서예부문 - 김광



희, 김동하, 김은숙, 김은영, 박종칠 등이 참여했다.

♣ 제13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



제13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이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문화회관 구 전시실에서 속초미술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전시작품으로는 제19회 설악학생 미술실기대회, 제9회 설악주부미술한마당 우수작이 전시되었다.

외국출품 도시는 일본 요나고시, 중국 훈춘시, 일본 사카이 미나도시에서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대한민국 전시작 90점은 외국 출품도시로 송부하여 외국에서 작품이 전시되게 추진 하였다.

♣ 제5회 한국국악협회속초지부 정기공연



6월 13일 오후 7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악협회 속초지

부의 정기공연이 개최되었다.

우수한 우리민족의 전통문화를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보급하는 기회로 삼으며 향토국악인들의 연중 최고의 발표의 장으로서, 지역민들에게 국악에 대한 이해도 증진에 이바지한 사업이었다. 국악협회 속초지부 농악분과, 무용분과, 기악분과 및 프로젝트 그룹 '비'가 출연하였다. 천지소리, 승무, 교방무, 소리 날려 흠어지고 등의 프로그램으로 공연이 이어졌다. 주요출연진으로는 손정화(가야금), 정나라(아쟁), 정종임(피리), 이향하, 신승태(타악), 송준화(대금), 박소호(신디사이저), 신남희(해금), 권송희(소리), 김민희(승무), 김민희, 정진향, 박종순, 권민정, 김지혜(교방무) 박치영 외 9명(상모판굿)이 출연하였으며 관객은 300여명 이었다.

♣ 제16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6월 14일 오전10시 문화회관 대 / 소극장에서 영북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제16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가 속초음악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평소 청소년들이 갖고 닦은 음악적 기량을 선보이며 숨어 있는 재능을 발굴하여 미래의 역량 있는 음악인으로 배양하며 선의의 문예경쟁을 통한 청소년 음악예술 발전을 도모코자 마련한 대회로 피아노, 관현악, 성악 등 총43명이 경연에 참가하였다.

대상(한국음악협회 이사장상)은 관현악부문의 오안내(속초여자고등학교 3학년), 금상(예총 회장상), 성악 김수현(청봉초등학교 3학년), 현악 윤지현(설악여자중학교 3학년), 성악 이승현(용대초등학교 6학년) 등이 수상했다.

피아노 부문에는 초등 1-2학년부 은상 한예림(교동초 2학년), 동상 박지은(조양초 2학년), 지민주(교동초 2학년), 초등 3-4학년부 은상 김수현(청봉초 3학년) 동상 성지은(조양초 3학년), 이수현(청초초 4학년), 장려 우연지 (아야진초 3학년), 최진희(아야진초 4학년) 초등 5-6학년부, 동상 함석희(교동초 5학년), 홍세연(교동초 6학년), 장려 엄하은(조양초 5학년), 중

등부 은상 전옥수(속초여자중학교 2학년), 고등부 은상 김유진(속초여자고등학교 3학년), 동상 임상혁(설악고등학교 3학년) 성악부문 초등저학년부 은상 박예권(교동초등학교 3학년), 초등고학년부 동상 안지효(교동초등학교 4학년), 고등부 은상 서형곤(고양예술고등학교 1학년), 장려상 신승희(속초여자고등학교 2학년), 관악부문 초등부 은상 김성경(청대초 6학년), 동상 허정은(교동초 4학년), 장려상 김채은(소야초 6학년), 중등부 은상 엄윤채(설악여자중학교 1학년), 고등부 동상 손예만(속초고등학교 2학년) 현악부문 초등부 은상 김동근(청대초 5학년), 이지예(교동초 5학년), 중등부 은상 이주희(속초여자중학교 1학년), 장려상 이지희(설악여자중학교 1년)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제17회 강원도 청소년연극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연극협회 주관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7회 강원도 청소년연극제가 개최되었다. 강원 최고의 고교 청소년 연극제로서 그동안 역량 있는 연극인 등용문 역할을 돈독히 해 온 권위 있는 대회로 청소년들에게 연극 예술창작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극예술 제작과정을 통한 교우간 협동심과 심성개발 및 연극예술의 도시로서 속초가 널리 알려지는데 목적을 두고 전개한 사업이었다.

참가 학교 및 지도교사는 아래와 같다.

민족사관고등학교-천국 안내소(최관영), 춘천기계고등학교-방향하는 별들(최상태), 유봉여자고등학교-기적을 파는 백화점(송은경), 동광농공고등학교-도덕적 도둑(이수진), 속초고등학교-눈부신 날에(김여진), 도계고등학교-우리들의 이야기(이종오), 설악고등학교-빨간 도깨비(이보연), 속초여자고등학교-아름다운 사인(김성아)

심사위원은 장규호 한국연극협회강원도지회 부지회장, 전국향(전)한국연극배우협회이사, 우현종 작가가 맡았다. 도내 8개 고교가 참가하였으며 대상은 속초여자고등학교(아름다운사인)가 선정되었다. 속초여자고등학교는 11월 서울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 강원도 대표

로의 출전권 및 한국연극협회에서 지원하는 대회참가비 200만원이 지원됐다.

♣ 제13회 설악청소년음악회



6월 23일 오후 7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3회 설악청소년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6월 14일 제16회 설악청소년음악콩쿠르에서 금상이상 수상 학생들로 출연자가 구성되어 평소의 기량을 발표회 형식으로 공연이 이루어졌다. 설악청소년음악콩쿠르 상위입상 학생들이 기량을 펼치는 발표회 장을 마련함으로써 수상자와 비수상자와의 비교검증의 기회부여 및 발표자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과 현장 연주의 능력배양과 음악학습에 매진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진다. 주요 출연자는 음악콩쿠르 전체대상을 차지한 대상(관현악) 오만내(속초여고 3년), 금상(성악) 김수현(청봉초 3년), 이승현(용대초 6년), 금상 현악 윤지현(설악여중 2년), (피아노) 한예림(교동초 2년), 김수현(청봉초 3년), 전옥수(속초여중 2년), 김유진(속초여고 3년) 등이 출연하였다.

♣ 제9회 훈춘시 국제가요제



7월 1일 오후 6시 30분 중국 길림성 훈춘시 영국원 에서 제9회 훈춘시 국제가요제가 속초시, 강원도예총, 속초예총 주최로 성대히 개최되었다. 사회 김귀선(한국), 김리화(중국)의 진행으로 모두 20명의 출연자와 1천여명의 훈춘시 관람객이 입장

한 가운데 훈춘시장을 비롯한 훈춘시 인사와 강원도예총 부회
장 등 한국측 인사들이 축하의 자리를 함께하였다.

특히 올해는 훈춘시와의 문예교류 1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속초시 통장협의회 30여명이 격려차 방문을 하였다.

본 대회와 본선 진출자 모두에게 시상이 돌아갔으며, 영예의
대상은 훈춘시 마천자향 포태촌에 거주하는 최용씨에게 돌아
갔고 강원도지사 상장과 4,000위안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금상 3명에게는 각각 3,000위안 등, 총상금 25,900위안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또한 훈춘방문 기간에 가요제 사업과 연계
하여 훈춘시 소학교방문 문예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문예
일일 강사사업, 국제아동미술교류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 및 백
일장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하는 등 소학교 방문사업을 전개
하였다. 본 가요제 일행은 동춘향운을 이용하여 6월 29일 중
국으로 출발 7월 6일 사업을 성료하고 속초로 귀향하였다.

♣ 2008 한여름밤의 문화축제(시민.관광객과 함께 떠나는 문화축제)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속초시 장사동 사진항 오징어
맨손잡기축제 행사장에서 2008 한여름밤의 문화축제가 예총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주일간 개최된 본사업은 1·2부로 나뉘
어 1부는 12시30분부터, 2부는 야간에 8시부터 사업이 실시되
었다.

사업목적으로는 여름성수기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
을 위한 해변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다시 찾고 싶은 격조 높은
문화관광 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향토 예술인들의 창작
열정을 불태우는 예술 한마당으로서 예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고양을 통한 지역 문예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였다.

주요 출연진으로는 청소년댄스팀, 국악상설공연, 뽕리댄스,
힙합, 통기타, 클래식기타, 일렉트릭기타 연주 및 노래, 향토가
수, 무용공연, 색소폰연주 등이 공연되었다.

특히 강릉예총과 연계하여 속초에서 접해보기 어려운 외국
공연팀인 라트비아, 미국공연팀에 반응이 아주 좋았으며, 강릉
청소년뮤지컬의 공연도 호응이 좋았다.

본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 사진항 횡집상가
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08 설악 썸머관광사진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천혜의 비경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휴양 도시인 아름다운 속초에서 2008 대한민국 음악대향
연이 펼쳐지는 엑스포 부대 행사장내에서 사협 주관으로
“2008 설악 썸머관광 사진전”이 개최되었다. 음악대향연을 찾
은 외지관광객들에게 속초시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데 목
적을 둔 사협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총 전시작품은 60여점이며 전시는 이젤을 이용한 옥외사업
으로 출품자 2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황병진, 전택진, 고
명자, 유홍균, 정태환, 강영진, 선종용, 박세인, 김보영, 김창환,
신태진, 최홍영, 김성호, 김형관, 홍성택, 김정희, 김용환, 최정
수, 최희재, 박민호, 김장현, 최종익, 최종화, 이왕선, 홍중호,
최종인, 김창수, 홍창해 등이 참여했다

♣ 2008 속초 웰빙콘서트



9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총18회 공연) 매 주말 청초호안
분수대광장 및 교동 먹거리 단지 공원광장에서 향토예술인과
관객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주말예술 무대를 꾸며 웰빙
시대를 맞아 시민에게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자 예총이 마련한 사업이다. 청초분수대 광장은 오후2시, 교동 먹거리 단지는 오후7시 30분에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인기프로그램인 “참여 한마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품권으로 강원도 재래상품권을 지급, 재래시장 홍보에도 기여하였다.



교동 먹거리단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개한 야간사업은 올해 처음 전개하였음에도 모니터링 결과 공연실시에 따른 호응도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먹거리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나름대로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출연자 모두가 예총가족의 연대의식으로 실력발휘를 통해 예술문화가 살아 숨쉬는 품격 높은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이바지한 사업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당 웰빙콘서트는 2007년도부터 속초예총에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임에도 예총의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지는 사업이다.

♣ 연극공연 - “새로 맞는 미래” (새로마지플랜2010정책홍보공연-신삼신할매편)



9월 15일 오후2시 청초유원지 분수대광장과, 9월 19일 오전 10시 설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새로 맞는 미래”란 제목으로 대안연극을 공연하였다.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다룬 교육마당극으로 할일이 없어진 삼신할매와 저승사자를 등장시켜 슬기롭고 코믹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블랙코미디극으로

요즘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의 해결책을 딱딱하고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의 틀을 벗어나 극 속의 사건들과 부딪치면서 문제를 인식케하고 자연스럽게 관객이 배우와 함께 대안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든 연극이다.

총 2회에 걸쳐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한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공연이 이루어졌고, 두번째 공연은 속초시 엑스포 공원 분수대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었다. 가족 단위의 관객, 산책을 나온 노인분들 등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즐긴 공연이었다.

♣ 제7회 갈외독자초청 시낭송회



제43회 설악문화제 전야제를 기념하여 제7회 갈외독자 초청 시낭송회가 문인협회와 설악문우회 주관으로 10월 17일 오후 5시 속초평생교육정보관 3층 다목적실에서 개최되었다.

70여명의 독자가 참가한 가운데 박명자, 이구재, 권정남, 윤동주, 최월순, 김종현, 최명선, 심순덕, 이선자, 최효선, 한용훈의 작품을 김정리, 이숙화, 박현주, 최금단, 박정향, 박혜성, 이현숙, 정미숙, 김명희, 송미정, 최현주씨가 작품낭송을 하였다.

♣ 2008 통일거리시화전



제43회 설악문화제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문인협회 주관으로 통일 거리시화전이 설악문화제 보조행사장에서 전시되었다. 박명자, 김춘만, 이충희, 이구재, 최재순,

지영희, 권정남, 서귀옥, 최월순, 김종현, 김향숙, 최숙자, 서미숙, 장은선, 최명선, 이선자, 박대성, 심민걸, 최효선, 송현정, 정명숙시인 등이 40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속초문화협 회원의 거리시화 작품을 통하여 향토 문학인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설악문화제를 찾은 외지관광객들에게 38년의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속초문학의 저력을 알려 속초의 격조있는 문학적 품격을 널리 알린 전시회였다는 평을 받았다.

♣ 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43회 설악문화제 기념 속초사진작가협회 회원전이 엑스포 광장일원에서 사협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하는 설악과 속초의 풍광을 지역 최고의 작가들이 렌즈에 담아 설악의 단풍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선보여 관광휴양 도시인 아름다운 속초시를 널리 선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설악문화제를 문예축제로 승화하는데 일조하였던 사업이었다.

♣ 2008 설악아동화 거리전



제43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2008 설악아동화 거리전이 10월 17일~19일까지 설악문화제 보조행사장에서 개최되었다.

몽골형 텐트를 이용하여 체험행사와 아이들이 화이트펜으로 그림그리기, 찰흙으로 만들기(동물, 컵, 사람), 캐릭터 그리기, 풍선에 그림그리기, 수수깡으로 꾸미기, 캐릭터 그리기, 성냥으로 꾸미기, 스텐실 판화, 호일에 매직으로 그림그리기, 흙

그림, 곡식으로 꾸미기 등 아기자기한 소품 수백점을 전시하여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시작품은 미술협회 회원으로 몸담고 있는 허인순씨의 임광미술학원생 작품들이다.

♣ 중국 훈춘 해당화예술단 초청공연



제43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중국 훈춘시 조선족 해당화예술단 초청공연이 속초예총 주관으로 10월 18일 오후7시 30분 엑스포장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해당화 예술단은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예술단으로서 2006년에 방한 공연한 바 있다.

공연작품으로는 가무-아리랑(출연 : 김향이 등), 남성독창-무얼까?(노래 : 최금도), 여성독창-어른들은 걱정 안되나봐, 아빠 힘내세요 (출연 : 허진혜 등), 댄스-(출연 : 한이정 등), 녀성독창-홀로 아리랑, 꽃타령 (노래 : 김혜영), 무용-텐미미 (출연 : 정설화 등), 녀성독창-두루미 날아왔어요.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노래 : 김향이), 녀성5중창-영천아리랑 (출연 : 림청아 등), 무용-장백아기 (출연 : 리려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공연 소요시간은 60분이었다.

금번 행사는 속초와 훈춘시와의 교류시로서의 우호협력 증대와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통일한국의 염원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예총의 해외교류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이다.

당 사업은 설악문화제의 위상제고는 물론 민족동질성 회복 및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고양에 일조하였으며 설악문화제의 가장 두드러진 공연사업으로 자부할 만큼 공연 완성도와 관객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예술단 단장은 채수광 훈춘시 인민정부 문체국장, 김옥 제1실험소학교 교장 및 지도교사 등 30명의 예술단이 방한하였다.

예술단은 18일 오후2시 2008 양양연어축제 기념으로 양양예총 초청을 받아 연어축제장에서 공연을 한 바, 연어축제를 찾은 내·외국인 관람객과 양양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16일 방한하여 2회공연 및 속초지역 문화유적지 탐방, 서울나들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19일 출국하였다.

♣ 2008 통일가요제



지난 10월 4일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2008 통일가요제 예심에서 선발된 15인이 출전한 통일가요제 본심이 속초연예협회 주관으로 10월 19일 오후2시에 제43회 설악문화제 주무대 행사장에서 개최되었다. 지역 최고의 가수를 뽑는 금번 행사에 관객 모두가 흥겨운 노래와 장기자랑에 많은 갈채를 보내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 고양과 일체감 조성에 일조하였던 사업이었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 대상 - 김주완 외1인 설악문화제위원장상 : 50만원
- 금상 - 박상은 속초예총회장상 : 30만원
- 은상 - 김순남 속초연예협회지부장상 : 25만원
- 동상 - 김영도 속초연예협회지부장상 : 20만원
- 장려 - 송정옥 속초연예협회지부장상 : 20만원
- 장려 - 서광석 속초연예협회지부장상 : 20만원
- 인기 - 김혜수 속초연예협회지부장상 : 5만원

♣ 제46회 강원종합예술제



2008년 10월 31일 오후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강원도 예총 주관으로 제46회 강원종합예술제가 개최되었다.

개막공연으로 AHA 댄스 씨어터의 공연과 갯마당(판굿), 율려(십면대북, 해피송), 태극(두드림), 색소폰 4중주 및 노래공연과 제2부 공연으로 색소폰(손진), 소프라노 독창(민은홍), 테너 독창(이찬구), 소프라노, 테너중창, 강릉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갯마당(상모판굿) 등이 공연되었다. 강원예총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예총을 초청하여 개막공연을 성대히 개최한 바, 속초예총에서는 한기학회장을 비롯한, 김영복 명예회장, 신원하 극협 고문, 예총 임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 제13회 속초서우회 회원전



제13회 속초서우회회원전이 11월 8일~9일까지 예총후원 사업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구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개막 테이프 커팅은 8일 오전 11시에 개최되었고 20명의 회원작품이 전시되었다. 금번 회원전은 속초서우회 연중 최고의 결산사업으로 회원화합은 물론 서도를 통한 자기수양과 회원간 작품비교를 통한 창작의욕에 대한 고취에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지난 십수년간의 꾸준한 발표회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 서예인구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바 큰 사업이라 평가되어진다. 속초예총은 창립전 이후부터 꾸준히 본사업을 후원해왔다. 출품자는 박학성, 송석환, 최삼용, 임만근, 전재남, 박춘일, 최양규, 허정도, 조중기, 김병준, 박찬호, 김덕봉, 박종철, 유진숙, 김병택, 김기성, 임근배, 손은청, 박경수, 김승철 등이며 총60점을 전시하였다.

♣ 제1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상수상-한기학



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6시에 경기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연예예술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기학 속초예총 회장이 한국예총 이성림 회장상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대상인 문화훈장은 가수 설운도씨가 받았다.

♣ 극단 굴렁쇠 일본 도쿄 연극세미나 참가



굴렁쇠(대표 김귀선)에서는 12월 1일~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국제연극세미나에 참가하였다. 김귀선 극단대표, 신오일 극협지부장, 석경환 사무국장 및 굴렁쇠 단원들이 참가하였다. 춘천시 극단 도모와 함께 동행하였으며 신주쿠 타이니 앨리스 극장 견학, 연극 공연 관람 - (앨리스 페스티벌)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다.

♣ 제22회 예총예술문화상수상 (공로상) - 신오일

신오일 한국연극협회속초지부장은 12월 11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2회 예총예술상(공로상 부문)을 한국예총 회장으로부터 수상하였다.

1982년 청년문화연구회 회장 및 2005년 연극협회속초지부장을 맡으면서 강원연극제의 성료와 향토연극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날 공로상 부문은 전국에서 17명의 예술인이 수상하였다.

♣ 극단 굴렁쇠 “한씨연대기” 순회공연



굴렁쇠(대표 김귀선)가 문화적으로 소외된 도내 학교들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에 나섰다. 굴렁쇠는 12월 12일 황성 공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9년 1월 9일까지 평창, 진부, 양양 등 10곳의 학교에서 ‘한씨연대기’(황석영 작, 김귀선 연출) 순회공연을 펼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소외지역 ‘2008 신나는 예술여행’ 지원 프로그램인 이번 공연은 경제적 여건, 거리상의 문제, 이동의 어려움 등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나눔 사업이다. 굴렁쇠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을 비롯해 학교 순회공연으로 한씨연대기를 올린 횟수가 50여 차례에 달한다. 김귀선 대표는 “한씨연대기는 우리 민족이 어떤 역사를 보내고 겪었는지 당시 상황과 국제정세를 잘 드러내고 있어 교육적 가치가 크다”며 “비록 시대적 배경에 한계는 있지만 5천년을 이어온 우리역사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고 소개했다. 이번 공연에는 김귀선 대표를 비롯해 황현중, 석경환, 남호섭, 정경숙, 추교미, 전경희, 이상렬, 박문수가 출연하였다.

♣ 갈매 38집 발간 및 문학축제



12월 13일 오후 4시 속초평생교육정보관 3층 다목적실에서 한국문인협회속초지부·설악문학회 주관으로 갈매 38집발간 및 송년문학 축제가 개최됐다. 한해 동안 향토문학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활동이 우수한 회원을 격려하며, 갈매지 발간의 자축은 물론 회원의 화합과 유대 강화로明年的 활발한 창작활동을 기약코자 해마다 개최되는 문학인들의 송년 잔치이다. 금회 갈매 필진은 시 - 22명 박명자, 김춘만, 이충희, 이규재, 이화국, 채재순, 지영희, 권정남, 최월순, 김종현, 김향숙, 최숙자, 조인화, 장은선, 최명선, 박대성, 이선자, 신민걸, 최효선, 송현정, 정명숙, 고선희, 소설 - 2명 윤홍렬, 최재도, 수필 - 2명 이은자, 서미숙씨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320쪽 분량의 4×6배판 1,000부 발간으로 발간주기는 연회 비매품으로 전국도서관 및 문학관련 단체에 무료로 배부된다.

이날 송년 문학의 밤 프로그램은 사회 박대성씨의 사회로 회장인사, 내빈소개, 갈피 2008 소사 소개, 회원인사 및 시낭송, 쉼터로 - 가야금 연주 (김영훈 가야금 산조), 이선자 회원의 사회로 2부 행사는 독자출연 시낭송, 제3부 행사인 독자와 함께하는 만찬이 진행되었다.

♣ 제2회 강원예술상 수상 (공로상) - 윤홍렬



윤홍렬 속초예총 명예회장은 12월 19일 오후 5시 춘천 베어스 관광호텔에서 강원도예총이 개최하는 2008 강원예술인 평가대회에서 제2회 강원예술상(공로상 부문)을 수상하였다. 설악문우회, 문협속초지부, 한국예총속초지부 결성 및 회장을 맡으면서 우리지역의 문학발전 및 문예저변 확대에 그간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원예술상 공로상 부문은 강원도내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20년 이상의 공적이 있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 2008 미술협회 속초지부 송년자선미술제



2008년 한해의 향토미술 활동을 되돌아보고 마무리하는 때를 맞아 조형 활동을 통하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를 담아 2008미술협회속초지부 송년자선 미술제가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문화회관 신전실에서 개

최되었다.

2008 속초미술인의 밤 사업을 연계하여 활동이 우수한 회원을 격려하며, 회원의 화합과 유대 강화로 명년의 활발한 협회활동을 기약하며 시민들에게 향토미술의 이해도 증진은 물론 미술인 저변확대 및 각 장르별 조형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고 하며, 오프닝은 19일 오후 6시에 개최되었으며 출품자명단은 아래와 같다.

한국화 - 백종숙, 조정승

서양화 - 김영복, 김종학, 박동국, 박흥기, 서문일초, 이동수, 이설윤, 이인재, 정광섭, 정봉재, 조정남, 최금란, 박혜정, 이인재, 전원재, 허인순

조 소 - 도창록, 박영근, 장국보

공 예 - 고주리, 정경연, 진금희

서 예 - 김광희, 김동하, 김송금, 김은숙, 김은영, 박종철

♣ 제18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연주회



속초음협 연중 최대의 발표회인 제18회 음협 속초지부 정기연주회가 12월 19일 오후 7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한해의 음악활동을 되돌아보며 회원의 화합과 유대강화로 명년에 보다 활발한 협회활동을 기약하며 한해 동안 준비해온 수준 높은 음악을 지역민에게 선보여 지역 음악을 사랑하는 풍토조성으로 음악인 저변확대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공연 출연자 및 프로그램은 Flute solo 김안나 제18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쿨 대상 수상자 등이다.

- Ebert concerto 1악장, TRUMPET 이규호-, concerto study - goedike, Cello 김지영

- Schumann - Adagio and Allegro Opus70, Piano 신정원 - Bach - Busoni chaconne (바흐 - 부조니 샤콘느), 색소폰 한기학, Soprano Duet 김태연, 이우순 - Mirao Norma(가련한 노르마), V. Bellini (Opera Norma중), 메조

소프라노 이수순 - Habaner - G. Bizet (Opera Carmen), 테너 임권묵 - 내 마음의 강물(이수인), - Non ti scordar di me (D. Curtis), 소프라노 김태연 - Col sorriso d'innocenza(V. Bellini), Duet 소프라노 김태연, 임권묵 등이다.

♣ 2008 강원일보 어린이 합창단 송년음악회

2008 강원일보 어린이합창단 송년음악회가 12월 23일 오후 7시 동우대학 아트홀에서 예총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강원일보 어린이 합창단은 올해 창단 24년을 맞으며 주요 공연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나무의 노래, 가위바위보, 과일의 합창소리, 속초시립 풍물단 찬조공연 「백설공주」(그림형제 원작 / 박나리 곡) - 난장이들의 노래, - 거울아 거울아, - 사랑의 하모니, - 노래를 불러요, 영광초교 합주단 공연(관악합주 3곡), 합창 - 열레리 플레리(김청운 곡), 우리집에 왜 왔니(서정민 곡), 도라지 꽃 (박지훈 곡) If You Try (Don Besig 곡), 엄지야 엄지야(서정민 곡) 등이 공연되었다.

♣ 제2회 설악 바다일요화가회 정기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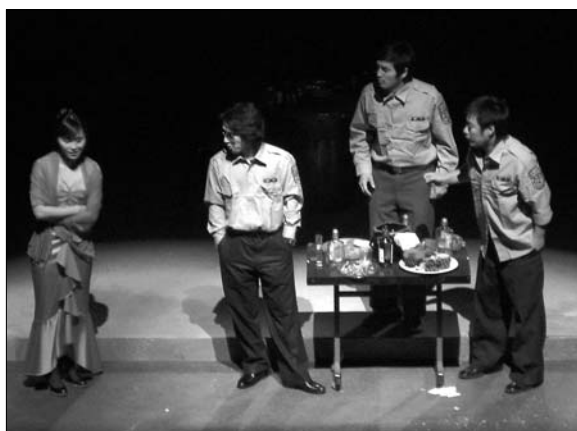
제2회 설악바다 일요화가회 정기전시회가 “설악과 함께하는 자유와 상상의 호흡전”이란 주제로 12월 25일~31일까지 예총 후원 사업으로 문화회관 신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설악권내에 그림을 사랑하는 취미 미술인들의 모임으로써 연례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최대의 취미미술 전람회로써 육성발전 및 일반인들도 쉽게 미술을 배우고 접함으로써 미술의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목적을 둔 사업이었다.

전시장르는 서양화(유화)며 총 23명이 35점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 극단 굴렁쇠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

굴렁쇠에서는 무대공연제작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



된 연극 “라이방”(송민호작 최귀웅 연출)을 2008년 12월 27일 오후 4시, 7시 속초문화회관에서 무대에 올렸다. 현대사회 소시민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영업 택시기사 3명을 주요 등장인물로 하여 30대 중반에 돈도 권력도 명예도 없이 오로지 더 말고 지켜야할 책임들만 밀려오고, 그로 인해 한없이 내려앉기만 하는 초라한 어깨의 386들에 대해 이야기 한 작품이다. 출연배우들은 극단의 젊은 배우층으로 구성되어 연극을 전공중인 25살의 동갑내기가 호흡을 맞추며 신선함을 보여주었다. 박문수(재범), 이상렬(기진), 남호섭(진상) 변수미(재범처의 다역), 김귀선(제작), 석경환(무대), 황헌중(진행), 김민혁(음악)이 출연하였다.

♣ 속초예술지 9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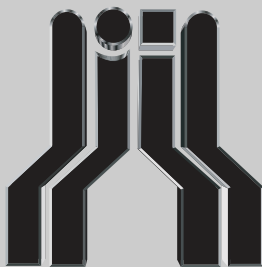


속초예술 제9호가 12월 31일 발간되었다. 전문 예술지를 지

향하며 속초예총 8개 협회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글을 소개한다. 또한 미술, 사진협회의 지상갤러리, 백일장 우수작 소개, 문학평론, 국악이야기 및 다양한 예술기고문과 중국 훈춘시 국제가요제 체험후담, 일본 국제연극제를 다녀오고 나서 등 해외 교류사업 등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며 회원협회 및 회원동정과

2008년도 속초예총 사업실적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배부처는 전국예총 및 향토예술인, 유관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며 비매품으로 제작되었다.

속초예술



2008년도 한해도 속초예총 8개협회지부(문인·미술·연극·연예·음악·사진·국악·무용)의 3백여명의 회원들이 많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15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한기학), 제22회 한국예총예술문화상 공로상(신오일), 제2회 강원예술상(윤홍렬)은 물론 제25회 강원연극제에서 단체 대상(굴렁쇠), 연출상(김귀선), 우수연기상(석경환, 추예인), 단체 은상(청봉), 무대미술상(정봉재)을 수상하는 등 유난히 경사스런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종합예술제를 비롯 설악문화제,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송년예술제,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등 협회가 서로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예총가족들이 서로 합심하여 훌륭한 예술혼을 꽃피우기를 기대해 봅니다.



겨울밤 속조에서
물의세상에 동화되다

2009 속초

물과 불의 축제

 속 초 시

- **체험행사**
부교건너기, 창작등만들기, 소원양초만들기
갯배타기, 망우리(요요) 돌리기, 달집 태우기 등
- **전시/관람/공연/행사**
개막식축하공연, 카테일 불쇼, 수상멀티미디어쇼
불 테마 전시관, 논외호 불꽃놀이극, 워터화이어등
- **후원**
문화관광부,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 **협찬**
JINRO | THE HITE. | 나른 하이원리조트 | 한화리조트/실악

2009 Sokcho
Water Fire Festival

2009. 2. 6(금)~14(토), 9일간

장 소 : 속초청초호수일원

행사문의 : (033)639-2143~4 www.sokchowaterfire.com

2009



謹賀新年

Greetings of the season and best wishes for the new year

지난 한해 보살펴 주신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속초지부

회 장 한기학
부 회 장 박 화
부 회 장 정봉재
감 사 강은희
감 사 김형관
사무국장 박중성
사무과장 김정하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장	김춘만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장	신동진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	신오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부장	강종철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장	원영백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장	정연석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장	황병진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장	양숙희